

NYPI YOUTH REPORT

청소년리포트

vol.08 _ 06 / 2010

ISSN 2005-9183

GO TO THE WORLD!
GO TO THE FUTURE!

테마 |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

NYPI

미래세대리포트 "꿈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최창욱

조사통계리포트 한국 청소년의 진로 · 직업 실태 | 최인재

정책제언리포트 청소년 진로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 최인재

해외동향리포트 캐나다 청소년의 건강실태조사 | 김경준

한 · 중 · 일 고등학생의 학업태도 비교조사 | 임희진 · 김현철

청소년리포터 GLS를 소개합니다 | 김아로(대전관저고)

칼럼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와 청소년 활동 | 김형주

발간물 소개 NYPI발간물 / 자료실 신착 도서

NYPI NEWS

YOUTH

REPORT

GO TO THE WORLD!
GO TO THE FUTURE!

NYPI YOUTH REPORT

vol.7 2010. 06

발행일 | 2010.06.30

발행인 | 이명숙

편집인 | 이창호

발행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114 교총빌딩 9/10층

전 화 | 2188-8860 **팩스** | 2188-8869

디자인 | 김성희 www.kimsunghee.com

인쇄 | 엘에스컴

홈페이지 | www.nypi.re.kr



- 04 | 🌐 미래세대 리포트 "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_ 최창욱
- 10 | 📈 조사통계 리포트 한국청소년의 진로·직업실태_ 최인재
- 24 | 📖 정책제언 리포트 청소년 진로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_ 최인재
- 28 | ✈️ 해외동향 리포트 28 캐나다 청소년의 건강실태조사_ 김경준
36 한·중·일 고등학생의 학업태도 비교조사_ 임희진 · 김현철
- 44 | 🏠 청소년 리포터 GLIS를 소개합니다_ 김아로(대전관저고)
- 49 | 🍀 칼럼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와 청소년 활동_ 김형주
- 51 | 📄 발간물 소개
- 57 | 📰 NYPI NEWS

“꿈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¹⁾

최창욱 | 연구위원

1. 배경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의 시각에서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육성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추진·점검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청소년 정책참여 기구로서, 청소년특별회의에서 제안된 정책과제는 소관부처에서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청소년특별회의는 2009년 5월 개최된 출범식에서 “청소년,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사회 만들기”로 의제를 정하고, 이를 구현할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그동안 지역별 워크숍, 토론회 및 캠페인 등의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이번 청소년특별회의는 전국 16개 시·도 청소년 324명과 중앙 및 지역 추진단 74명 등 400여명으로 구성·운영되었다. 이번에 제안된 정책과제는 청소년의 진로교육, 진로상담, 직업체험, 취약계층 진로지원 등 4개 분야 20개 과제로서 “청소년 직업·진로 상담프로그램 지원 강화”, “청소년 직업체험관 건립 확대” 등 청소년의 시각에서 바라 본 실질적인 현안과제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까? 청소년들이 제안한 주요 정책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이 내용은 제5회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 자료의 일부분이다.

진로교육 부문

1-1. 청소년 직업·진로 정보 제공 기회 확대

1-1-1. 직업·진로 관련 교육매체 개발 및 홍보 강화

- 청소년 직업·진로 정보 교재(드라마, 만화, 강의 영상자료 등) 제작
-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직업·진로 잡지 개발 지원: 인문계·전문계·특목고 등 일정 비율로 구성된 학생들이 직업·진로에 특화된 잡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 학교급별(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전문계고, 특수목적고 등) 특성이 반영된 진로교육 매뉴얼 개발 및 직업·진로, 관련 학과 정보제공 가이드북 등의 서적 교내 의무 비치
- 인터넷 사이트의 홍보 강화 및 내실화를 통한 청소년의 직업·진로 정보 접근 용이성 확보

1-1-2. 16개 시·도 청소년직업정보서비스센터 설치 및 활성화

- 16개 시도에 청소년 직업정보서비스센터 설치를 통하여 직업에 대한 자료제공 및 교육실시와 지역의 특색을 살린 직업군탐방, 대학 및 기업과의 연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및 실행

1-2. 청소년 직업·진로교육 내실화 및 질적 향상

1-2-1. 청소년 직업·진로교육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 정기적인 청소년 직업 선호도 조사, 직업·진로 관련 연구 시행 등을 통한 청소년직업·진로 교육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진로교육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부처간(교과부, 보가부, 노동부 등) 연계 체계 강화
- 맞춤형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실시: 학교 및 학생 특성별 수요자 중심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직업·진로 전문교사에 의해 실시함과 동시에 미래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학교 내 진로교육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1-2-2. 직업·진로 전문 인력 양성 및 인력풀 구축

- 1개교 당 1인 진로교육 전문가 배치를 통한 청소년들의 직업·진로지도 및 상담 활성화
- 학교 및 청소년기관과 현장 실무자와의 연계를 통한 직업·진로교육 전문 인력풀 구축
- 교사 및 청소년지도사 양성과정에 진로교육 관련 내용 반영과 진로교육 담당 교사, 청소년 시설·단체의 지도자 대상 직무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1-2-3. 학교별 명사특강 기회확대

- 다양한 직업인들로 구성된 가칭 「진로교육 현장지원단」 구성·운영을 통한 각급 학교 순회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 각급 학교 명사 초청 특강에 대한 예산지원



진로상담 부문

2-1. 직업 · 진로 상담 서비스 강화 및 지역 네트워크 확대

2-1-1. 학교와 지역사회 전문상담 기관연계 및 시스템 구축

- 학교와 지역사회 전문 상담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청소년 직업 · 진로관련 심층 상담 체계 구축
- 6개월에 1회 이상 전문상담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진로직업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 해결 유도
-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위기가능 청소년 발굴 및 예방강화 상담활동 강화

2-1-2. 청소년 지원기관(청소년 상담기관)의 진로상담 기능강화

- 시 · 군 · 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상담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기관 및 시설의 상담사 자격 증 소지 인력배치 및 상담창구의 다양화

2-2. 청소년 직업 · 진로 상담프로그램 활성화

2-2-1. 청소년 직업 · 진로 상담프로그램 실시 및 지속적 관리 지원

- 청소년 자아정체성 발견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실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와 직업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을 통한 고민 해소와 삶의 방향성 제시
-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춘 진로적성검사 프로그램을 학교에서는 년 2회, 각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는 년 1회 실시 유도
- 상담 또는 적성검사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추후에 이어지는 진로직업 프로그램 역시 활성화하여 참여를 유도, 청소년들의 진로직업 관련 고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체계 마련





직업체험 부문

3-1. 청소년 직업체험프로그램 활성화

3-1-1. 청소년 직업체험 Career Day 운영

- 매월 **Career Day**를 설정하여 직업·진로 세미나 개최 및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대학과의 연계를 통하여 원하는 학과의 청강 프로그램 확충
-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진로직업체험의 달**과 연계하여 운영

3-1-2. 온라인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체계 구축

- 온라인 가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기능성 게임) 개발하고, 현재 정부와 게임 업계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린게임 캠페인의 '배우는 게임문화' 부분과 연계하여 **직업체험 게임 특별위원회** 설립 추진
- 교육적인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온라인 시뮬레이션의 다양한 직업정보 제공 및 소셜미디어(Social media) 운영을 통한 직업 정보 관리 사이트 구축

3-1-3. 소외계층 청소년 직업체험 버스 운영(꿈을 실은 버스[Dreamy bus])

- 농어촌 및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주제별 직업체험 **꿈을 실은 버스**운영을 통한 직업현장체험 프로그램 시행

3-1-4. 직업체험 활성화를 위한 산업체 참여 확대

- 범정부적으로 협력 기업을 모집하여 지역(시·군·구) 당 10개 이상 체험 프로그램 마련
- 청소년에게 유용한 사업이나 지원을 하는 기업에 가칭 **YFC: Youth Friendly Cooperation**인증

3-2. 청소년 직업체험 관련 각종 시설 및 제도 개선

3-2-1. 청소년 직업체험 최소이수시간제 도입 및 활성화

- 미래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매년 일정한 시간의 최소 직업체험 활동을 의무화 추진
- 적성검사, 직무수행능력평가 등의 다양한 검사 후 직업체험이 가능하도록 하며 이수 학생을 대상으로 수기 공모전 등의 활동으로 능동적 참여 유도

- 교육과학기술부의 마이커리어(My Career) 사업과 연계하여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청소년의 직업·진로 체험의 이력 기록 및 관리. 누적된 이력을 활용하여 대학교 진학 및 취업 시 인센티브 제공

3-2-2. 청소년 직업체험관 건립 확대

- 직업체험 프로그램 총괄을 위한 종합 직업체험관 설립 확대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에 미니직업체험관(미니진로체험관) 설치·운영
- 기업에서 운영하는 홍보관을 ‘청소년 직업 체험관’으로 확대 운영 유도

3-3. 청소년 직업체험 기회제공 및 지원

3-3-1. 진로관련 동아리 개설 및 지원 확대

- 각 학교의 다양한 과목 담당 교사의 지도하에 진로 관련 동아리를 개설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동아리에 한해 청소년수련관 혹은 대학 동아리와 연계·운영
- 우수동아리 포상제도 확대 및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동아리에 대해 장학금 제도 시행

3-3-2. 청소년 직업체험 인턴십 강화

- 진로탐색적 성격의 인턴십인 Job Shadowing 프로그램 강화
 - ※ Job Shadowing 프로그램: 청소년들이 현직자를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나 직업환경 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3-3-3. 청소년 대상 창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창업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온·오프라인을 이용한 청소년 창업자 대상 창업 박람회 및 정기모임 개최
- 청소년 창업 지원 자금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창업에 대한 기회와 자원 제공

3-3-4. 안전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기회제공

- PC방, 노래방 및 유흥업소 등의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아르바이트에서 벗어나 직업·진로 적성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아르바이트 기회의 폭 확대

취약계층 진로지원 부문

4-1. 취약계층 청소년(저소득계층, 농어촌지역 및 새터민, 다문화 가정 등) 진로체험 및 상담프로그램 활성화

4-1-1. 취약계층 청소년 직업·진로체험 바우처제도 도입 및 고용서비스 강화

-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직업·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직업·진로체험 쿠폰 기능의 카드를 1인당 1개씩(10회 체험 가능) 발급
- 직업·진로체험을 통한 경제적인 문제 동시 해결 가능한 직장체험 연수 및 인턴십 프로그램 확대
- 직업교육훈련 기관 우선 대상자 지정제도 및 청소년을 위한 채용지원금 제도 도입 및 일정기간 취업을 전제로 근로장학금(학비지원) 제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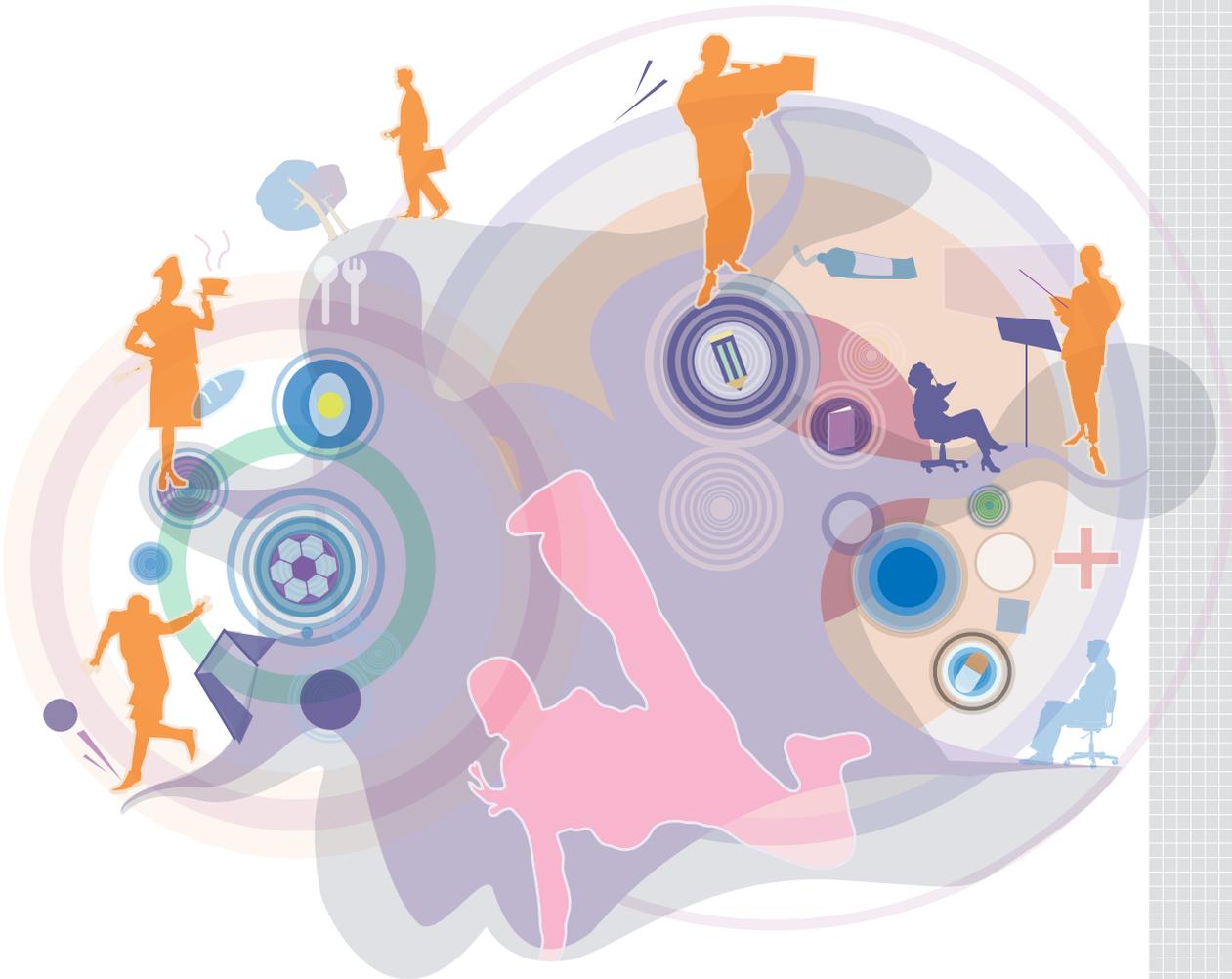
4-1-2. 취약계층 청소년 직업·진로 상담프로그램 강화

-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1:1 직업·진로 멘토링 운영 : 취약계층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청소년들이 원하는 진로 분야의 전공을 공부하는 대학생 및 직업인 멘토 연결
- 전국 시·군·구에 있는 청소년 상담관련 시설, 전문기관, 학교와 연계하여 학업중단 및 탈학교 청소년들이 쉽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학업중단 및 탈학교 청소년의 진로 직업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병행



한국 청소년의 진로 · 직업 실태¹⁾

최인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I. 조사개요

1. 조사의 필요성 목적

‘청소년 지표(youth indicators)’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현재 상태와 변동추세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준거로서, 향후 청소년정책수립의 방향설정은 물론 청소년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연구주제라 할 수 있다. 이 조사는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IV’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으로 이 조사에서는 청소년 진로·직업 영역을 중심으로 이 영역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과 태도를 포함하여 청소년들의 실제 경험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관적 지표를 개발하고,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정부부처나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생산해온 청소년 통계는 기존 행정통계 자료를 수집하여 재가공하는 형태로 제시하거나, 1~2년의 단발적인 비정기 실태조사로만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재가공 통계나 단발성 실태조사의 경우 설문문항이나 표집방법, 조사시점 등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에서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의 기본방향과 목적을 설정하였다. 먼저 청소년 지표 각 조사결과와 정책적, 학술적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엄정한 지표개발과정을 통해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행정통계 자료를 수집·가공하여 제시하는 형태가 아니라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표집된 표집대상에게 직접 조사하는 형태로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료 수집과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통해 한국 청소년들의 진로·직업 영역에 대한 현 상태와 변동추세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청소년 정책수립과 방향설정에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조사대상

이 조사의 모집단은 전국 12개 시·도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 여 중학생(1~3학년)과 일반계고, 전문계고를 포함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 여 고등학생(1~3학년)이다(제주도는 조사의 편의를 위해 제외함). 모집단 층화를 위한 표집틀은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년 교육통계연보」를 활용하였고,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된 전국 중, 고등학생 현황을 기초로 12개 시도별 학생수를 구분한 후에 각 시도의 학생 현황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였다.

조사의 표본크기는 「2008년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된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현황을 기초로 각 시도의 학생비율 분포에 근거하여 계산하였고, 층화다단계표집표집방법으로 표집 하였다. 조사대상자 현황은 중학생 3,010명(중1: 968명, 중2: 1,024명, 중3: 1,018명), 고등학생은 3,499명(일반계고1: 849명, 전문계고1: 387명, 일반계고2: 813명, 전문계고2: 404명, 일반계고3: 702명, 전문계고3: 344명)이었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합한 총계는 6,509명이었다.

1) 본고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년도 고유과제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IV’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II. 주요 조사결과

1. 진로 · 직업 의식

1) 진로 · 직업 가치

(1) 직업생활에 대한 전반적 가치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생활에서의 가치 순위는 '쾌적한 근무환경(M=4.53)'에 서,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M=4.53)'을 '성취감을 갖고(M=4.31)',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M=4.29)'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버는 것(M=4.09)'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직업생활에 대한 전반적 가치에 대한 지표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

번호	문항	평균	표준 편차
1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갖는 것	4.31	0.770
2	단조롭게 반복되지 않고 변화 있는 일을 하는 것	3.63	0.884
3	많은 돈을 버는 것	4.09	0.838
4	쉽게 실직되지 않고, 오랫동안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	4.29	0.790
5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4.20	0.851
6	내가 일하는 곳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	3.70	0.947
7	혼자 하는 일 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	3.84	0.917
8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	3.76	0.874
9	더 발전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4.01	0.845
10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3.88	0.913
11	윗사람의 명령이나 통제 없이 독자적으로 일하고 책임지는 것	3.47	0.939
12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	4.53	0.717
13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것	4.53	0.717
14	규칙적인 출퇴근 시간과 휴가가 보장되는 곳에서 일하는 것	4.07	0.949
15	일이 간단하고 쉬운 곳에서 일하는 것	3.21	1.072
전체		3.96	0.468

주: 평균의 경우 5점 척도로 측정된 결과임. 이하 동일

(2)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으로는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M=4.34)'을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꼽았고, 다음으로 '뚜렷한 목표의식(M=4.33)', '근면함과 성실성(M=4.31)', '좋은 성품(M=4.26)',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M=4.2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정배경(M=3.31)이나, 학벌(M=3.42), 운이나 요행(M=3.56) 등은 낮은 점수 분포를 보였다

〈표 2〉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에 대한 지표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

번호	문항	평균	표준 편차
1	돈(자본)/재산	3.99	0.902
2	근면함과 성실성	4.31	0.733
3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	4.34	0.747
4	인맥	4.18	0.852
5	좋은 성품	4.26	0.781
6	자기개발	4.19	0.801
7	운이나 요행	3.56	0.994
8	가정배경	3.31	1.157
9	학벌	3.42	1.107
10	뚜렷한 목표의식	4.33	0.782
11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	4.23	0.772
전체		4.02	0.518

주: 평균의 경우 5점 척도로 측정된 결과임. 이하 동일

(3) 논의 및 과제

본 지표조사에서의 진로·직업 가치에 관한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진로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향성을 추구하는지를 알 수 있다. 첫째, 직업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에 있어서, 청소년들은 내적인 가치와 외적인 가치를 모두 추구하고 있다. 전체적인 경향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직업가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청소년들은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M=4.53)',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갖는 것(M=4.31)', '더 발전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M=4.01)' 등의 직업의 내적인 측면에 높은 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쾌적한 근무환경(M=4.53)', '높은 고용안정성(M=4.29)', '타인으로부터의 인정(M=4.20)', '높은 보수(M=4.09)', '규칙적인 출퇴근과 휴가의 보장(M=4.07)' 등의 외적인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반적인 직업가치를 청소년 개개인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지, 특히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진로의사결정 사이의 '타협(compromise)'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청소년들은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위해서는 다양한 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청소년들이 높은 수준으로 인식한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은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M=4.34)', '뚜렷한 목표의식(M=4.33)', '근면함과 성실성(M=4.31)', '좋은 성품(M=4.26)', '자기개발(M=4.19)' 등의 내적인 요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돈(자본)이나 재산(M=3.99)', '인맥(M=4.18)' 등의 외적인 요인이 요구된다는 인식도 낮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직업가치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직업의식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보급함과 동시에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학교나 지역사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입학사정관 제도의 도입 등의 교육적인 여건 변화로 인하여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인 진로·직업의 가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다는 점에서 이른바 비교과 영역에 관한 다양한 체험 및 학습의 기회를 학교와 지역사회 현장에서 제공해야 할 것이다.

2) 진로 · 직업 태도 2)

(1) 진로 · 직업 태도 - 요인별 및 지표 항목별 평균 비교

진로 · 직업 태도에 대한 요인별 평균에서는 '준비성(M=3.8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확신성(M=3.10)', '결정성(M=3.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에서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길 원한다(M=3.93)'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다음으로 '나의 흥미나 성격 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싶다(M=3.92)', '내가 원하는 직업보다 부모님이나 주위사람들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R)(M=3.84)' 순 이었다.

〈표 3〉 진로 · 직업 태도의 요인별 및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

요인	문 항	평균	표준 편차
결정성	1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놓은 상태이다	3,21	1,163
	2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 놓았다	3,25	1,169
	3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를 선택하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2,74	1,206
	소계	3,08	1,078
확신성	4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R)	3,09	1,059
	5 나는 내 자신과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R)	3,11	1,081
	소계	3,10	0,963
준비성	6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원한다	3,93	0,982
	7 나의 흥미나 성격 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싶다	3,92	1,077
	8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데 관심이 많다	3,71	1,011
	소계	3,86	0,842
독립성	9 내가 원하는 직업보다 부모님이나 주위사람들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R)	3,84	1,034
	10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R)	3,73	1,063
	소계	3,79	0,924
	진로 · 직업태도(전체)	3,46	0,580

주. R은 역적도 문항을 의미함

(3) 논의 및 과제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어느 정도 잠정적인 결정을 한 상태로 나타났다. 또한 그 결정에 대해 보통 수준의 확신을 갖고 있으나, 관심 분야의 현직자와의 대화를 통한 정보 수집이나 진로상담 등을 통해 잠정적인 진로결정과 관련한 지속적인 탐색기회를 갖고자 하는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2)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① 결정성-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고한 정도, ② 확신성-진로선택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의 정도 ③ 준비성-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와 관심정도 ④ 독립성-자신의 진로문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가 아니면 타인에게 의존하여 결정하는가의 정도

〈표 4〉 진로·직업 태도의 요인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결정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		진로·직업태(전체)	
		M(SD)	t, F (Sheffé)	M(SD)	t, F (Sheffé)	M(SD)	t, F (Sheffé)	M(SD)	t, F (Sheffé)	M(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3,471)	3.09 (1.062)	1.057	3.13 (0.977)	2.821 **	3.74 (0.856)	-12.596 ***	3.74 (0.973)	-4.855 ***	3.42 (0.587)	-5.323 ***
	여자 (n=3,009)	3.06 (1.078)		3.06 (0.946)		3.99 (0.777)		3.85 (0.859)		3.50 (0.570)	
교 급 별	중학교 (n=2,995)	3.09 (1.071)	10.683 *** (ac, bc)	3.14 (0.976)	4.835 ** (ab, ac)	3.69 (0.835)	142.363 *** (ab, ac, bc)	3.80 (0.941)	12.448 *** (ac, bc)	3.42 (0.575)	38.859 *** (ab, bc)
	일반계고 (n=2,353)	3.12 (1.087)		3.07 (0.969)		4.07 (0.764)		3.83 (0.875)		3.54 (0.586)	
	전문계고 (n=1,132)	2.94 (2.018)		3.05 (0.915)		3.84 (0.847)		3.67 (0.962)		3.38 (0.563)	
전체 M(SD)		3.08(1.078)		3.10(0.963)		3.86(0.842)		3.79(0.924)		3.46(0.580)	

*p<.05, **p<.01, ***p<.001, 주: a=중학교, b=일반계고, c=전문계고

리고 자신의 진로탐색이나 의사결정에서의 독립적인 태도도 높은 편이었다. 이는 진로탐색의 기간에 있는 청소년들이 잠정적으로 갖고 있는 자신의 진로에 관한 생각이나 가설들을 다양한 방식, 특히 현직 자나 상담자 등의 전문 인력으로부터의 도움을 토대로 검증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비록 전체 응답자의 44.7%가 확실한 진로결정을 하였으며, 45.6%가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했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이들의 의사결정 내용 역시 시간이 경과하면서 변화할 여지가 높다고 할 때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높은 진로준비성과 독립성 태도를 촉진시켜 진로결정을 촉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고, 이들의 진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단위 학교 뿐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진로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준비에 있어서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도구나 개입전략이 조기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양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단순한 심리검사 위주의 프로그램보다는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

주목할 점은 진로·직업 태도에 있어서 전문계 고교생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비록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경향을 최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전문계 고교는 진학과 취업의 갈림길에 있는 학생들에게 조기의 진로결정을 토대로 구체적인 진로준비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전문계 고교생은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2. 진로 · 직업 경험

1) 진로 · 직업 교육

(1)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 및 만족도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50.5%만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에서 경험한 진로교육 중 '진로관련 검사를 통한 진로교육(78.3%)'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사회, 도덕, 기술·가정 등 과목에서의 진로교육(61.6%)',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을 통한 진로교육(55.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집단 혹은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37.2%)', '방과 후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38.6%)'은 낮게 나타났다.

진로교육 만족도의 경우는 '진로관련 검사를 통한 진로교육(M=3.21)'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상담선생님의 상담중심 진로교육(M=3.09)',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통한 진로교육(M=3.06)'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여부 및 만족도

번호	문항	경험여부		만족도	
		있음	없음	평균	SD
1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을 통한 진로교육	55.2	44.8	2.81	1.035
2	사회, 도덕, 기술·가정 등 과목에서의 진로교육	61.6	38.4	2.84	0.978
3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통한 진로교육	49.3	50.7	3.06	1.037
4	상담선생님의 상담중심 진로교육	45.4	54.6	3.09	1.017
5	진로관련 검사(예: 적성검사, 흥미검사 등)를 통한 진로교육	78.3	21.7	3.21	1.000
6	인터넷 또는 동영상 등을 통한 진로교육	48.5	51.5	3.02	1.011
7	소집단 혹은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37.2	62.8	2.99	1.057
8	저명인사나 선배의 초청 강의	45.3	54.7	2.98	1.061
9	재량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47.2	52.8	2.90	1.044
10	진로관련 위기자료를 통한 진로교육	48.6	51.4	2.97	0.998
11	방과 후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38.6	61.4	2.81	1.132
전체		50.5	49.5	2.97	1.034

주: 평균의 경우 5점 척도로 측정된 결과임. 이하 동일

(2)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관련 장애 및 요구도

'진로교육에 대해 나의 관심이 부족하다(M=3.17)'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진로교육에 대해 선생님의 관심이 부족하다(M=2.87)', '선생님들의 진로지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M=2.73)', '교과 학습이 많아 진로교육을 받을 시간이 부족하다(M=2.58)' 순으로 나타났다.

(3)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 · 직업관련 경험 및 만족도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 · 직업관련 경험 여부에 대해 '진로박람회(엑스포)'가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체험 교육(26.2%)'이 다음 순으로 나타

났다.

만족도의 경우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 관련 견학 프로그램(3.18)'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체험 교육(3.03)',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2.99)'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직업관련 경험여부 및 만족도

번호	문항	경험여부		만족도	
		있음	없음	평균	SD
1	진로박람회(엑스포)	30.0	70.0	2.97	0.956
2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커리어 스쿨(잡 스쿨)	21.3	78.7	2.95	0.969
3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체험 교육	26.2	73.8	3.03	0.968
4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	19.1	80.9	2.99	0.973
5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전공)관련 견학 프로그램	21.2	78.8	3.18	1.050
	전체	23.6	76.4	3.02	0.983

(4) 논의 및 과제

진로와 직업이라는 독립교과를 통한 방법(55.2%) 또는 사회, 도덕, 기술·가정 등의 보통교과의 일부 단원으로 진로교육을 전달하는 방법(61.6%)이 주된 진로교육 전달경로라는 것은, 교육과정과 진로교육의 연계를 강화하여 진로를 학교 교육과정의 중핵적인 요소로 다루는 것이 학생들에게 진로교육을 접할 기회를 확대하는데 매우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개별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진로교육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관련 제도 및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은 진로교육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우선적인 정책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현장학습 및 견학(49.3%), 소집단 혹은 동아리활동(37.2%) 등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한 진로교육 경험 비율은 여전히 낮은 비율을 이루고 있다. 이는 현행 중·고교에서의 진로교육이 학교 내 교실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역사회와의 실질적인 교류를 통한 현장감 있는 진로탐색이나 진로계획을 지원하는데 현행 학교 진로교육이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지역사회로부터의 충분한 역할모델도 제공하지 못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 진로교육이 체험 중심의 성격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수립되고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학생들이 학교 진로교육의 장애요인과 관련하여 진로교육에 대한 학생 개인의 관심 부족, 교사들의 관심 부족, 그리고 교사들의 전문성 부족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게 나타났다. ‘보편화’ 된 진로교육 활동과 ‘개별화’ 된 진로교육 활동을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형태로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학교 진로교육 안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인 수단들(예: 진로교육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 진로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배치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진로 · 직업(아르바이트) 체험

(1) 지난 1년 간(08년도 7월부터 09년도 5월까지) 아르바이트 경험 및 종류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를 묻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1.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급별로는 전문계고(26.9%)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반계고(11.3%), 중학교(6.3%)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중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단지 돌리기(31.6%)'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피자집 등 점원/배달(9.4%)', '분식점 등 점원/배달(8.1%)', '패밀리 레스토랑 점원(4.1%)', '편의점 점원(3.5%)' 순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성별 차이는 없었으나, 교급별에는 중학생의 경우 전단지 돌리기(64.4%)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7〉 지난 1년 중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파트타임)

응답자의 특성	전단지 돌리기	피자집 등점원/배달	분식점 등점원/배달	패밀리 레스토랑 점원	편의점 점원	일반상점 판매원	공장 노동	건설 현장 노동	게임방 점원	주유소 점원	카페 점원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
전 체	31.6	31.6	8.1	4.1	3.5	2.8	2.6	2.5	2.1	1.7	1.4	1.4
성별	남자	31.7	31.7	5.9	4.7	2.9	1.7	4.4	2.5	2.9	0.2	1.7
	여자	31.5	31.5	10.7	3.4	4.2	3.9	0.3	1.7	0.3	2.8	1.1
교급	중학교	64.4	64.4	3.1	0.5	1.6	0.5	1.0	1.6			2.1
	일반계고	27.7	27.7	6.0	5.2	3.0	3.0	4.9	0.7	2.6	1.9	2.2
별	전문계고	14.4	14.4	13.1	5.2	4.3	2.0	1.3	3.6	2.0	2.0	0.3

(2) 하루의 아르바이트 평균 시간 및 시급

하루의 아르바이트 시간은 평균 5.49시간 이었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아르바이트 시간이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남자(5.53시간)가 여자(5.43시간)보다 더 길었고, 교급별로는 전문계고(6.33시간)가 일반계고(5.88시간)나 중학교(3.55시간)보다 더 길었다.

아르바이트 시급은 평균 3,985원으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자(4,126원)가 여자(3,829원)보다 더 많았다. 그리고 교급별로는 일반계고(4,135원)가 가장 많았고, 거주지별로는 서울(4,082원)이 시·군(4,010원)이나 광역시(3,917원)보다 조금 더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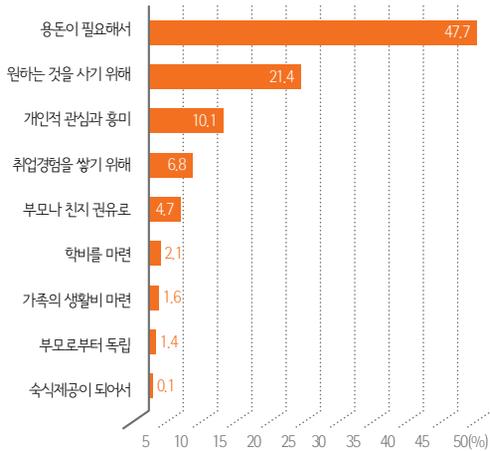


[그림 1] 아르바이트 시급(전체, 성별, 교급, 거주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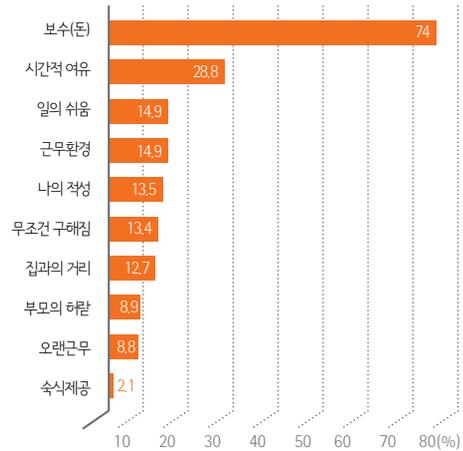
(3) 아르바이트 이유 및 구직 조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주요 이유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7.7%가 '용돈이 필요해서'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해(21.4%)', '개인적 관심과 흥미(10.1%)', '취업경험을 쌓기 위해(6.8%)', '부모나 친지 권유로(4.7%)' 순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역시 '보수/돈(74.0%)'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시간적 여유(28.8%)', '일의 쉬움(14.9%)', '근무 환경(14.4%)', '나의 적성(13.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아르바이트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그림 3] 아르바이트 구직시 중요한 조건

(4) 아르바이트 구한 방법 및 주요경험

아르바이트를 구한 방법: '친구나 선배의 소개'가 47.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족이나 친지의 소개'가 19.8%, '신문 등 구인광고'가 12.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을 하고 나서 한 두 번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우가 14.5%로 나타났다. 특히 이와 같은 경우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경험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21.4%가 한두 번 다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별차이는 없었으나, 다친 경험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회사나 고용주(사장)와의 '근로계약서'를 81.8%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72.2%는 고용주에게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 논의 및 과제

우리 사회에서의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여전히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많은 것을 이 조사결과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선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돈벌이 수단에서 머물러 있다. 미래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탐색 및 체험의 기회라기보다는 개인의 경제적인 문제나 요구를 해결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게다가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는 과정도 체계적이지 않고 친구, 선배, 가

족 등 주변인의 소개방법을 주로 활용하면서 일자리의 유형도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둠으로써 직업생활의 예비체험을 체계적으로 갖지 못한다.

직업·진로 체험은 여러 가지의 교육적인 효과나 의미를 갖는다. 즉 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계획과 관련하여 고려하고 있는 직업의 범위를 확장하도록 하고, ② 특정 직업이나 진로에 몰입하기 이전에 자신의 직업선호도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일련의 일이나 업무를 경험함으로써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원활하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장을 제도적·문화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즉 단순한 일자리 알선에 국한되지 않는 경제적인 의미와 학습의 의미를 병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진로·직업 역량

1) 진로·직업 역량-요인별 및 지표 항목별 평균 비교

진로·직업 역량에 대한 요인별 평균과 각 지표항목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합리적 의사결정(M=3.8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기이해(M=3.61), 진로·직업 지식(M=3.21)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 결과는 <표 8>과 같다.

세부 항목별 비교에서는 합리적 의사결정의 ‘직업에 대하여 알아 볼 때 그 직업이 나의 성격이나 흥미와 맞는가를 따져볼 것이다(M=3.98)’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이 나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지 따져볼 것이다(M=3.97)’, 자기이해의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M=3.82)’ 순으로 나타났다.

2) 응답자 특성에 따른 진로·직업 역량의 요인별 차이 분석

진로·직업 역량에 대한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변인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냈다. 진로·직업 역량의 전체 점수를 기준으로 볼 때,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t=-2.714, p<.001$), 교급별에서는 일반계고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또한 지역별에서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점수가 광역시나 시·군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세부 요인별 평균과 집단 간 차이 그리고 사후검증 결과는 다음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표 8> 진로·직업 역량의 요인별 및 지표 문항별 평균 및 표준편차

요인	문 항	평균	표준 편차
자기 이해	1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3.37	1.046
	2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3.82	0.917
	3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선택의 조건(명예, 보수, 봉사 등)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3.66	0.920
	4 내 성격에 어울리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3.41	1.045
	소계	3.61	0.910

진로 · 직업 지식	5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3.24	0.994
	6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그 직업의 전망 등에 대해 알고 있다	3.07	1.001
	7	나는 여러 가지 직업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3.07	1.015
	8	나는 나에게 맞는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알고 있다	3.12	1.012
	9	내가 원하는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3.05	1.047
	10	내가 관심을 가지는 직업의 특성(예: 일의내용, 수입, 근무환경 등)에 대해 알고 있다	3.19	1.019
	11	내가 원하는 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알고 있다	3.34	1.076
소계			3.21	0.935
합리적 의사 결정	12	여러 직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해 본 후에 내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3.74	0.967
	13	진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생각할 것이다	3.60	0.958
	14	내가 처한 현실(가정환경,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3.44	1.009
	15	직업에 대한 지식과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3.81	0.872
	16	직업에 대하여 알아 볼 때 그 직업이 나의 성격이나 흥미와 맞는가를 따져볼 것이다	3.98	0.889
	17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이 나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지 따져볼 것이다	3.97	0.880
	18	내가 갖고 싶은 직업에서 요구하는 학력이나 자격을 갖추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 할 것이다	3.70	0.874
	19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한 후에 결정할 것이다	3.79	0.910
	20	구체적인 진로를 선택하기에 앞서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할 것이다	3.79	0.867
	21	진로결정에 관하여 가족갈등이 생겼을 때 잘 타협하여 결정할 것이다	3.70	0.965
소계			3.80	0.800
진로·직업태도(전체)			3.56	0.745

〈표 9〉 진로·직업 역량에 대한 응답자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자기이해		진로·직업 지식		합리적 의사결정		진로·직업역량(전체)	
		M(SD)	t, F (Sheffé)	M(SD)	t, F (Sheffé)	M(SD)	t, F (Sheffé)	M(SD)	t, F (Sheffé)
성 별	남자(n=3,487)	3.62(0.953)	1.320**	3.23(0.983)	2.107**	3.73(0.861)	-7.677***	3.62(0.953)	-2.714***
	여자(n=3,022)	3.59(0.857)		3.18(0.875)		3.88(0.713)		3.59(0.857)	
교급별	중학교(n=3,010)	3.59(0.949)	21.744*** (ab, ac, bc)	3.23(0.975)	4.701** (ac, bc)	3.76(0.843)	40.494*** (ab, ac, bc)	3.59(0.949)	7.395** (jk, jl)
	일반계(n=2,364)	3.69(0.848)		3.21(0.880)		3.91(0.714)		3.69(0.848)	
	전문계(n=1,135)	3.48(0.912)		3.13(0.934)		3.67(0.821)		3.48(0.912)	
거주지	서울(n=1,015)	3.73(0.934)	11.937*** (jk, jl)	3.33(1.003)	11.597*** (jk, jl)	3.83(0.844)	1.223	3.73(0.934)	7.395** (jk, jl)
	광역시(n=2,274)	3.59(0.936)		3.20(0.959)		3.78(0.827)		3.59(0.936)	
	시·군(n=3,220)	3.58(0.880)		3.17(0.891)		3.80(0.765)		3.58(0.880)	
전체 M(SD)		3.61(0.910)		3.21(0.935)		3.80(0.800)		3.56(0.745)	

*p<.05, **p<.01, ***p<.001

주: a=중학교, b=일반계고, c=전문계고, j=서울, k=광역시, l=시·군

3) 논의 및 과제

진로·직업 역량 또는 진로개발 역량은 청소년들이 원활한 진로개발을 전개하는데 요구되는 다양한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이 폭넓고 깊이 있는 진로탐색을 토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진로계획을 수립·실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에 요구되는 다양한 지식·기술·태도를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지표조사 결과는 청소년들의 진로·직업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첫째, 피상적인 개인적인 탐색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넘어 실제적인 진로탐색과 의사결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청소년 개개인이 자신의 특성을 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노동시장 안에서 현직자들이 어떠한 직업생활을 하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함으로써 실질적인 직업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하는 노력이 포함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적으로는 청소년들의 폭넓은 진로탐색과 합리적인 진로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나 매체를 개발·보급하는 노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폭넓은 진로탐색을 토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 즉 자신의 특성에 맞는 진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의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의향을 진로개발에 관한 청소년의 욕구로 이해한다면 학교나 지역사회 단위의 진로교육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강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셋째, 영역별로 학교급이 증가할수록 진로·직업 역량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전문계 고교생은 이러한 경향에서 예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진로·직업 역량은 중학생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는 전문계 고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중학교시기에 진로를 결정한 즉 조기 진로결정자보다는 낮은 학업성적으로 불가피하게 전문계 고교로 진학한 학생이 많다는 현실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비록 전문계 고교가 특정 분야의 직무수행능력을 학습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진로개발에서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학생들이 다수 입학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기에 적극적인 개입과 처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Ⅲ. 결론

본 진로·직업 지표조사의 결과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의 측면에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는 청소년들이 그들에게 요구되는 진로개발 과업(career development tasks)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하는 관점에서의 논의이다. 이와 관련하여 준비상태 또는 진로성숙의 상태가 ‘충분하다/충분하지 않다’의 이분법적인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이들의 진로개발이 전개됨에 있어서 주변의 상황, 특히 학교나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의 지원이 적절한가에 관한 시각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즉 이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스스로가 좋아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

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근무환경의 쾌적함, 높은 고용안정성, 높은 보수 등과 같은 외적인 직업가치도 병행하여 추구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적극적인 진로개발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은 편이며, 특히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을 추구하는 성향도 높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수준에서의 진로개발 역량이나 준비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일부 지표에서는 청소년들이 구체적인 수준으로 진입하지 못하였음을 시사하기도 하며 구체적인 진로·직업 정보는 획득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업도 일부 영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문직’으로 구분되는 직종에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이 시급하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의 진로개발 요구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사회적으로도 청소년들에게 높은 수준의 진로개발 성숙도를 지닐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청소년의 진로개발 성숙의 정도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진로개발 요구 또는 진로개발에 있어서 기대되는 정도와 현재 수준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개입전략(intervention strategies)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진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들은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력의 내용은 교육과정을 통한 접근방법과 심리검사로 요약된다. 이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직업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진로교육’이라는 활동이 학교교육과 직업세계를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때 현재 우리나라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교실 내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제한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교실 내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 진로교육 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만족도도 높지 않다는 것은 현재의 진로교육이 청소년의 진로개발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의심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현행 진로교육의 내용이나 전달방법(delivery strategies), 그리고 교사나 시설 등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집단 기반의 프로그램 운영과 개인 기반의 개별화 서비스가 동시에 운영되어야 하며 교실 내 활동과 지역사회에서의 현장체험이 병행됨으로써 청소년에게 발견되는 진로개발 성숙에서의 불일치한 모습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진로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¹⁾

최인재 | 부연구위원

1. 학교에서의 진로 · 직업교육의 내실화와 효과성 제고가 요구된다.

진로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발달이 지속되는 영역으로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발달시기에 맞는 진로 · 직업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주장과 노력으로 현재 초 · 중 · 고교에 진로 · 직업 교과를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재 및 기타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보급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도 한국 청소년 진로 · 직업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진로 혹은 직업과 관련된 심리검사를 받아본 학생들은 약 80% 가량 되지만, 진로 · 직업 교과를 비롯한 다른 영역의 진로 · 직업교육을 받아보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50%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은 진로 · 직업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평균 30% 정도에 그쳤다. 이러한 응답 경향성은 학교급이나 학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학교에서의 진로 및 직업 교육의 내실화와 효과성을 제고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몇 가지 제안 하면 다음과 같다.

1) 본고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년도 고유과제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IV'의 일부를 수정 · 보완 한 것임.

2) 1위는 '진로교육에 대해 나의 관심이 부족하다' 이었음

(1) 학교 교사들에 대한 진로교육 연수 강화

진로교육에 대한 장애요소에 대한 조사 결과 진로교육에 대한 선생님들의 관심 부족(2위)²⁾, 선생님들의 진로지도에 대한 전문성 부족(3위)이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 선택 및 결정 영향 요인 조사 결과에서도 학교 담임선생님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아버지 27.1%, 어머니 22.9%, TV/라디오 7.8%, 특별한 계기 없음 5.7%, 인터넷 5.4%).

진로 정보 수집 방법 조사 결과 역시 담임선생님은 4.7%(인터넷 34.8%, 아버지 13.6%, 어머니 8.4%, TV/라디오 7.5%)로 매우 낮았다. 이는 교사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 부족에 대한 단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이들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교육 연수가 요구된다.

(2) 교과와 통합한 진로교육 활성화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 재량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교과통합 진로교육 등 정규 교육과정 속의 진로 프로그램 중 진로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 진로개발 역량을 분석한 결과 교과통합(사회, 도덕, 기술·가정 등의 과목을 통한 진로교육) 진로교육에서만 유일하게 진로개발 역량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교육 경험 빈도에 있어서도 교과통합 진로교육 경험이 다른 두 방법에 비해 높은 빈도를 기록하였으나, 현재 학교 진로교육에서 교과와 통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및 교사의 지도 능력은 이러한 효과성과 중요성에 비해 매우 미흡하였다. 따라서 학교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 교과별로 교과와 통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과목 담당 교사에 대한 교과통합 진로교육 연수 강화 등 교과와 통합한 진로교육을 보다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3) 진로교육 지도 방법의 효과성 제고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여부에 따른 진로역량을 분석한 결과 진로교육 방법 중 상담선생님의 진로상담, 진로관련 심리검사를 통한 진로교육, 진로 관련 읽기 자료 활용 등을 통한 진로교육은 경험여부에 따라 진로역량에 차이가 있었지만, 현장학습이나 견학, 인터넷 또는 동영상 활용, 소집단 혹은 동아리 활동 등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 현장학습이나 견학, 인터넷 또는 동영상 활용 등은 학교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진로지도 방법들인데, 지금까지 이러한 방법들의 경우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방법의 강구 없이 단지 경험 제공만을 목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현재 학교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진로지도 방법에 대한 효과성 검토가 선행 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진로교육에 대한 청소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병행될 때 보다 효과적인 진로개발 역량이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 진로 · 직업교육 담당 전문교사 양성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 · 직업교육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로 · 직업 담당 전문교사가 배치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대부분 담임교사가 진로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일부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가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조사결과에서도 '진로와 직업' 교과목과 '재량활동에서의 진로교육'이 진로개발 역량 증진에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는데,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의 관심과 전문성 부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진로교육 장애와 관련된 문항에서도 '진로교육에 대해 선생님들의 관심(M=2.89)과 전문성 부족(M=2.75)을 높게 꼽았다.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활성화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모든 교사의 전문성을 일정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진로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교사 양성과정의 설치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먼저 교사 양성과정에서 진로 지도능력의 기초를 확실히 갖출 수 있도록 전체 교직 이수과목 중에 진로지도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과목을 최소 4학점 이상 필수로 이수토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경우 새로운 관련 교과목으로 '진로지도' 및 '교과진로지도론'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진로지도'는 각 급 학교 교사들이 학생 진로지도를 위해 필요한 공통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며, '교과진로지도론'은 자신의 전공과목을 가르치되 진로교육의 관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안목과 방법론을 체득시키기 위함이다. 따라서 '교과진로지도론'의 교수에 있어서는 교직교수와 전공교수와와의 학제적 접근이 필요하고 팀티칭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3.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관련 체험 프로그램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학교나 가정 이외의 공간에서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따라서 학교 내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함께, 지역사회에서의 인프라, 특히 다양한 직업세계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여러 주체의 참여를 촉진하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 프로그램 경험 여부와 만족도에 따른 진로개발역량을 분석한 결과 진로개발역량은 프로그램 경험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 이러한 결과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 프로그램이 내실화를 기하지 못할 경우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실시하더라도 진로개발 역량의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의 필요성을 동시에 제시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 프로그램에 대해 사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조사를 실시하고, 사후에는 효과성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단순한 행사위주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세계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지역 단위에서의 청소년지원기관, 산업체 및 교육기관간의 긴밀한 연계와 파트너십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3) 진로박람회(엑스포),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커리어 스쿨(잡 스쿨),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 관련기관의 직업체험 교육,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 대학 주최 학과(전공)관련 견학 프로그램, 기관 주최 진로·직업관련 경험에 대해 만족도 여부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과의 차이 분석결과 모든 프로그램에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 및 직업관련 역량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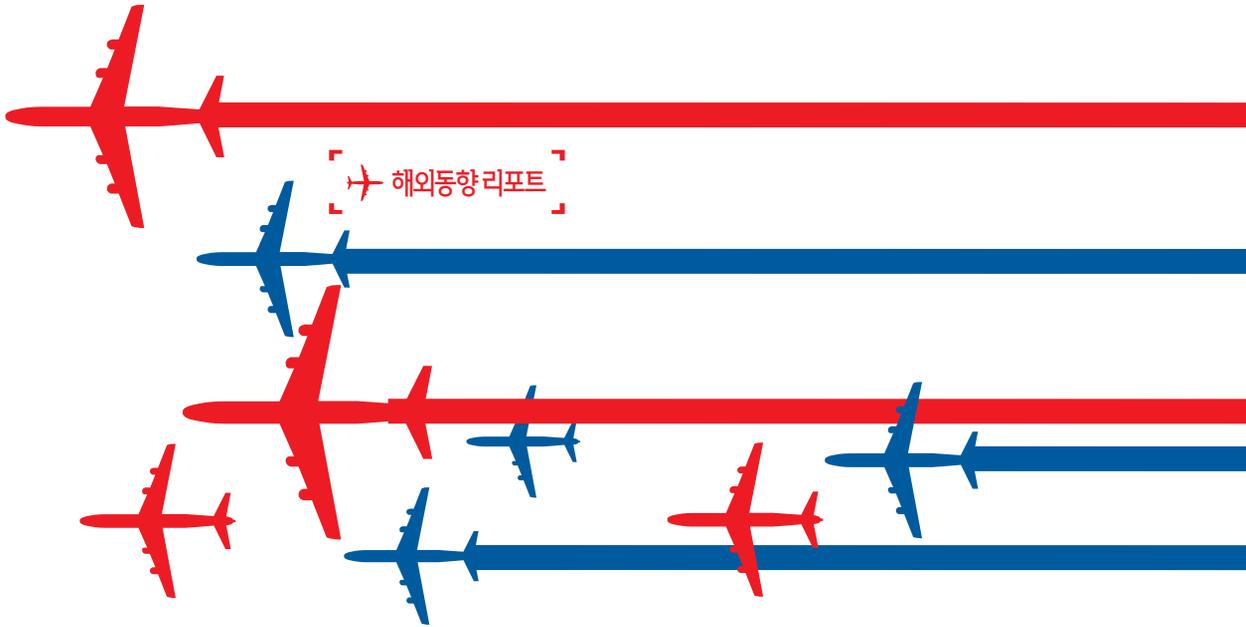
4. 진로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인지도 확대 및 서비스 강화가 요구된다.

인터넷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밀접한 교류수단이며, 정보수집원이다. 조사결과에서도 진로·직업과 관련한 정보를 '인터넷 포털'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학교나 진로 관련 기관 혹은 매체를 이용한다는 응답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 관련 정보 출처로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것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에서도 인터넷(27.1%)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아버지(13.6%), 어머니(8.4%), TV·라디오(7.5%), 진로 관련 사이트(5.0%), 친구(5.0%)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인터넷 공간에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자료들이 산재해 있어, 청소년들의 건강한 진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로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공인된 온라인 진로 정보망(커리어넷, 청소년워트넷 등)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공인된 진로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학교 홈페이지나 청소년들이 자주 접속하는 사이트에 공인된 진로관련 사이트를 링크하는 방법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로 관련 서비스 측면에 있어서는 청소년들의 발달수준과 계층별 요구에 부응하는 메뉴와 정보를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및 취약계층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온라인 정보망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청소년근로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가 요구된다.

이 연구의 조사결과 지난 1년간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11.7%로 조사되었다. 특히 전문제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26.9%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청소년고용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야간 및 휴일근로 금지 위반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모동의서 미제출 등의 근로기준법상 위반 사례도 많이 나타났다. 또한 구타나 폭행, 성희롱이나 성폭행, 상해 등 안전과 보호의 문제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한 후 '일을 하고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험'이 17.5%,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서는 81.8%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 동의서 제출 여부'에서는 72.2%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하다가 다친 경험은 28%, 성희롱이나 성폭행 경험은 5.3%, 구타나 폭행을 경험한 비율은 4.9%로 나타났다.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 사업주, 각급 학교 교사 및 학생들에게 연소근로자 근로관련 노동관계법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진로담당 교사나 교사연수과정 교육프로그램에 연소자 근로조건 및 피해 사례별 구제방법 등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건전한 직업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정 근로조건 보호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 일자리 정보 제공 및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고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이 요구된다.



✈ 해외동향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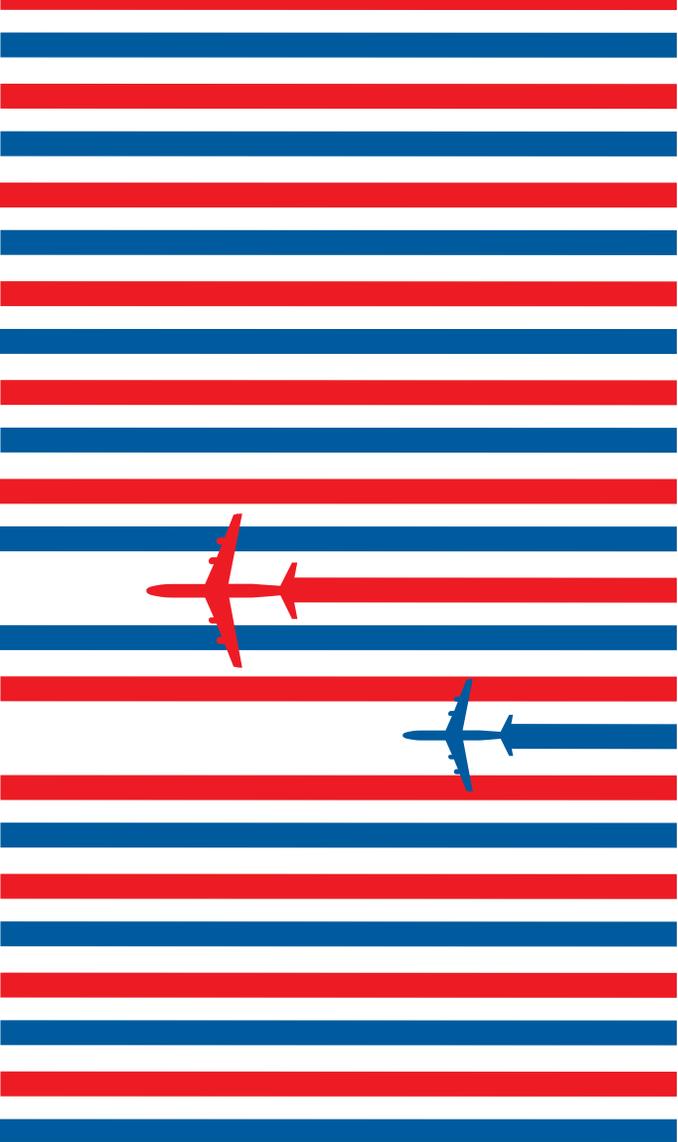
캐나다 청소년의 건강실태조사¹⁾

김경준 | 선임연구위원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British Columbia) 주에서 수행한 청소년건강조사(Adolescent Health Survey, AHS)는 1992년에 처음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거의 5년 주기로 대단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조사 이후에는 심층 분석과 수감 청소년, 가출청소년 등과 같은 학교 환경에 있지 않은 청소년들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고 있다. 청소년의 건강상태의 변화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험요인을 줄이고 보호요인을 확대할 것을 목적으로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기관, 학교, 지역사회가 관련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계획하고 평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워크숍을 통해 관련 청소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청소년 건강에 관한 정확한 정보 및 데이터의 생산, 이를 토대로 정부, 지역사회, 청소년의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청소년 보건 데이터의 확인을 통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평가 등의 순환적인 과정을 통하여 청소년건강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고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에서 수행한 청소년보건조사 결과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개발에 시사점을 얻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1) McCreary Centre Society(2009). A picture of health-Highlights from the 2008 BC adolescent health survey 보고서를 요약한 것임.



1. 조사개요

청소년건강조사(Adolescent Health Survey, AHS)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포함하여 브리티시 콜롬비아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그림을 제공하기 위하여 McCreary Centre Society에 의해서 수행된 조사이다. 2008년 2월에서 6월 사이에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공립학교 7-12학년 학생 29,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1992년에 처음 조사가 시작한 이후 1998년, 2003년, 2008년의 총 4번째 조사가 진행되었다. 2008년도에는 59개 학

교구 중에 50개가 참여하여 2003년도의 45개보다 참여학교구가 증가하였다.

조사내용은 현안 청소년보건 문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하기 위하여 디자인 되었다. 대부분 1992년 이래로 동일한 내용이 조사되었으며, 2008년도 조사에서는 현재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 위험행동,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각 등을 포함하는 147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가족 연계, 학교안전, 동료관계 등과 관련한 질문 등이 조사되

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청소년의 대표 샘플을 위해서 참여 학교구로부터 공립학교 학급이 무작위로 선택되었다. 공공보건 간호사, 간호학과 학생 및 기타 훈련된 사람들이 1,760개 교실에서 29,440명의 학생들에게 익명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는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정책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정부, 학교, 보건전문가 및 지역사회 기관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청소년들은 다양한 인종, 문화,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유럽계 54%, 동아시아계 18%, 원주민 10%, 남아시아계 8%, 동남아시아계 5%, 라틴/남/중양아메리카계 3%, 아프리카계 2%, 오세아니아계 2%, 기타 1%, 모른다 10% 등으로 54%의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이 영국,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등 유럽계인데, 2003년의 61%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남아시아계(5%에서 8%), 동남아시아계(4%에서 5%), 원주민(7%에서 10%)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적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차별로 인해서 원주민 청소년들은 건전한 발달을 하는데 독특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원주민 연구팀에 의해서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주요 조사내용

1) 신체적 건강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청소년의 신체적 건강상태는 지난 10년간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생들(84%)은 좋다고 하였으며, 허약한 건강상태이거나 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1998년도에는 13%였으나 2003년도에는 11%로, 그리고 2008년도에는 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은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위험 중의 하나로, 의사치료를 받을 정도로 부상을 당한 학생들은 1998년 39%에서 2008년 29%로 지난 10년간 10% 감소하였다. 심각한 부상을 당한 장소로는 지역사회 스포츠 시설이나 운동장(39%), 학교(17%), 집(15%) 등으로 나타났다. 거리나 도로에서 부상을 입은 학생들은 2003년과 2008년 사이에 9%에서 6%로 감소하였다. 모터사이클의 안전벨트나 자전거 헬멧은 청소년 부상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데, 언제나 안전벨트를 착용한다는 학생들의 수가 지난 10년간 12%(2003년 54%, 2008년 6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항상 헬멧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지난해와 비교해 비슷했으며, 1998년의 30%에서 2008년에 24%로 감소하였다.

2) 식습관 및 영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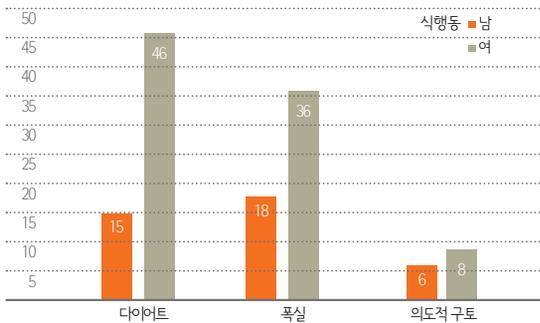
학교에서 건강 음식에 대한 이용과 더불어 일상적인 과일소비의 중요성에 대한 지각은 지난 10년간 청소년의 식습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절반 정도의 청소년들이 과일과 야채 하루 권장량이 부족했지만, 과일을 먹는 청소년의 수는 1998년에 72%에서 2008년에는 81%로 증가하였다. 아침식사의 경우에는 53%의 청소년들이 항상 아침을 먹었으며, 아침을 전혀 먹지 않은 청소년은 15%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들(57%)이 여자 청소년들(49%)에 비해서 아침을 먹는 경우가 많았다. 집에 충분한 음식이 없어서 배가 고플 채로 잠을 잔 청소년들의 경우에 매일 아침을 먹지 않았고, 물, 과일, 야채나 우유도 먹지 않았으며, 피자, 핫도그 등 정크푸드를 먹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체중 및 신체이미지

청소년 신체용적지수(BMI)에 따르면, 정상 체중은 78%, 저체중은 5%, 과체중은 13%, 비만은 4%로 나타났다.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과체중이거

나 비만인 경우가 많았다. 비만청소년과 TV시청, 비디오게임과의 관련성이 있었다. 비만청소년은 건강한 체중의 청소년에 비해서 평일에 평균 4시간 이상의 TV시청이나 비디오게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신체이미지에 대해서는 여자청소년들이 불만족하는 경우가 남자청소년들보다 많았다. 약 19%의 남자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이미지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데 비해, 여자 청소년들은 10%만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도에 비해 신체이미지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2003년도에는 남자 만족도가 14%, 여자 만족도는 8%였다. 2008년도 조사에서 식 후에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 다이어트를 한 경우는 여자청소년이 46%, 남자청소년이 15%였고, 폭식을 한 경우는 여자청소년이 36%, 남자청소년이 18%였으며, 의도적으로 구토를 한 경우는 여자청소년이 8%, 남자청소년이 3%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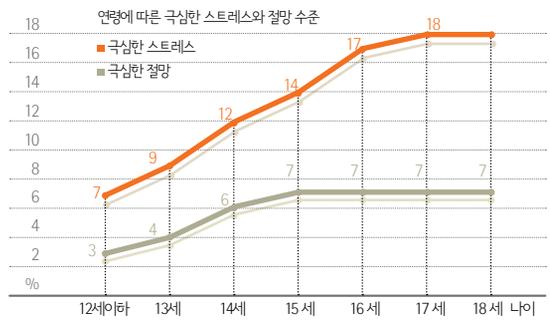


4) 정신적 및 정서적 건강

자아존중감과 관련한 조사에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에 대해서 좋다고 한 청소년은 87%,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청소년은 78%, 자신의 삶이 유용하다고 한 청소년은 86%였다.

스트레스 경험은 84%의 청소년들이 지난 한 달간 일정 정도 이상의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으며, 14%의 청소년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

다. 여자청소년들(18%)이 남자청소년들(10%)에 비해서, 그리고 연령이 많을수록 극심한 스트레스를 많이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의 청소년들은 슬픔을 느끼거나, 낙담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극심한 절망 수준이었다. 여자청소년(8%)이 남자청소년(4%)보다, 그리고 연령이 높은 청소년이 어린 청소년보다 절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극심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은 성인기로의 이행에 따른 책임감의 증가, 요구, 기대 등과 연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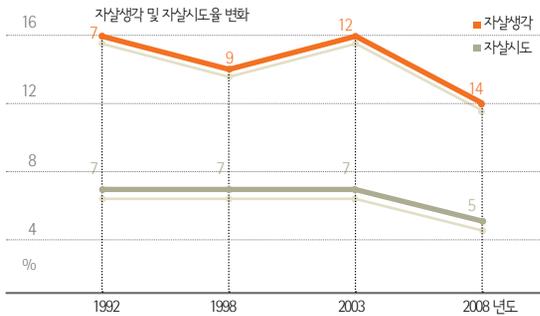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나 절망에 대한 하나의 대처방법으로 자해행위를 한다. 17%의 청소년들(여자청소년 22%, 남자청소년 12%)이 자살의 목적을 갖지 않고 의도적으로 자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두 번 자해한 청소년은 11%였고, 세 번 이상 자해한 청소년은 6%였다. 자해행위는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그리고 약물사용과 관련성을 보였다. 즉, 신체적으로 학대를 받거나(35%) 성적 학대를 받은 학생들(43%)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신체적 학대를 받지 않은 학생 13%, 성적학대를 받지 않은 학생 15%)보다 자해의 가능성이 높았으며, 알코올, 마리화나, 약물을 경험한 학생들도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자해의 가능성이 더욱 높았다.

5) 자살

자살은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12-18세 청소년

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두 번째 원인이다. 1992년과 2003년 사이에 심각하게 자살을 고려하고 있거나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들의 수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2008년도 조사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하게 자살을 고려한 학생들은 1992년과 2003년에 동일하게 16%였으나 2008년도에는 12%로 감소하였으며,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학생들도 1992년과 2003년도에 동일하게 7%에서 2008년도에는 5%로 감소하였다. 여학생들의 자살시도율이 7%로 남학생의 자살시도율 3%보다 두배 이상 되었지만, 남학생들의 자살 성공률은 오히려 여학생보다 높았다.



자살시도의 위험요인으로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의 자살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 중에 자살 시도 경험이 있었던 15%의 학생, 그리고 친구 중에 자살 시도 경험이 있었던 22%의 학생이 자살 시도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에 자살 시도나 자살을 한 가족구성원이나 친한 친구를 가진 학생들(18%)은 그러한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3%)에 비해서 6배 정도 자살시도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주민 청소년(11%), 레즈비언, 게이, 양성 지향 청소년(28%), 비만 청소년(10%), 장애 청소년들(16%)이 비원주민 청소년(4%), 이성 지향 청소년(4%), 건강한 신체의 청소년(4%), 장애를 갖지 않은 청소년(4%)보다 자살 위험의 가능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신체적 학대를 받은 청소년(15%)과 성적 학대를 받은 청소년(22%)도 그렇

지 않은 학생들(신체적 학대를 받지 않은 학생 3%, 성적 학대를 받지 않은 학생 4%)에 비해서 훨씬 자살시도가 높았다. 이 밖에 음주나 마리화나를 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두 배 정도의 자살시도가 높았으며, 기타 약물을 경험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보다 자살시도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흡연 및 약물

지난 10년간 학생 흡연율은 1998년 56%에서 2003년 34%, 2008년 26%로 감소하였다. 코카인, 암페타민 등과 같은 약물과 함께 음주나 마리화나 사용도 감소를 보였으나 환각제와 같은 약물 사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에 약물이나 음주를 한 청소년들의 경우에 부정적인 결과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41%의 청소년들이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할 수 없었으며, 31%의 청소년들은 정신이 나간 경험을 가졌다. 기타로는 가족 및 관계 문제, 폭력, 부상 및 원치 않은 성교 등의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7) 성 행동

2008년도에 22%의 학생들이 성교 경험을 하였으며, 78%의 학생들은 성교 경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성교 경험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원하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50%), 성관계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49%), 임신을 원치 않아서(39%) 등으로 나타났다. 첫 성교 연령은 대부분 15세였으며, 19%의 학생들은 14세 이전에 첫 성교를 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성교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 8%의 남학생과 10%의 여학생은 동성 파트너와 성교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학생들의 성교는 음주나 약물사용과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성교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에서 약 1/3인 32%의 학생들이 성교 전에 음주나 약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병은 1%의 학생들에게서 발견되었는데, 다수의 파트너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 성병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3%의 남학생과 5%의 여학생이 6명 이상의 사람들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나 간호사에 의하면, 6명 이상의 파트너와 성관계를 한 학생들이 그보다 적은 성 파트너를 가진 학생보다 성병의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하였다.

성교를 경험한 학생들 사이의 임신 예방을 위한 콘돔 사용이나 약 사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에 64%의 학생들이 콘돔을 사용하고 있고, 46%의 학생들이 약을 사용하였다. 1998년의 콘돔 사용 51%, 약 사용 33%에 비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2% 미만의 학생들이 임신을 경험하거나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8) 학대 및 폭력

신체적, 성적 학대는 브리티시 컬롬비아 주의 청소년들에게서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 중 하나이다. 2008년에 신체적 학대를 받은 청소년은 2003년의 15%에서 17%로 증가하였다. 성적 학대를 받은 청소년(8%)이나 신체적·성적 학대를 경험한 학생들(5%)의 경우에도 2003년과 2008년 사이에 개선을 보이지 못했다. 신체적, 성적 학대 경험은 부정적인 건강의 결과와 매우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학대를 받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서 신체적으로 학대를 받아 온 청소년들은 약 2배 정도 건강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은 그러한 학대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자살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 경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학교 결석을 보다 많이 하고, 학교에 무기를 많이 가지고 오며, 대학을 졸업하겠다는 생각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은 학대에 취약한 것

로 나타나고 있다. 제한된 건강조건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신체적 학대의 가능성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2배 이상(31% 대 15%) 높고, 성적 학대도 2배 이상(19% 대 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청소년들은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를 동시에 경험할 가능성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2% 대 4%).

신체적 성희롱을 경험한 학생 수는 2003년과 2008년 사이에 27%로 일정하였으나, 언어적 성희롱을 경험한 학생들의 수는 2003년에 44%에서 2008년에는 47%로 증가하였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언어적 성희롱(여학생 55%, 남학생 38%)과 신체적 성희롱(여학생 37%, 남학생 17%)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경험은 남학생(33%)이 여학생(15%)보다 2배 정도 많았지만, 2003년과 2008년 사이에 신체적 폭력에의 참여 경험은 남녀 모두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폭력의 결과로 의료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의 수(남학생 4%, 여학생 2%)는 변화가 없었다.

관계적 폭력(relationship violence)은 2003년도와 유사하게 2008년도에 9%의 남학생과 6%의 여학생이 그들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생들 중에서 게이, 레즈비언, 양성 지향 청소년들이 이성 지향 청소년들보다도 관계적 폭력의 희생자로 될 가능성이 3배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를 가진 청소년과 성적 학대를 받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서 신체적 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2배 이상 되었다.

2003년과 2008년 사이에 인종이나 피부색에 의해서 차별을 경험한 청소년의 수(12%)는 변화가 없었다. 신체적 외모에 의한 차별을 경험한 청소년은 2003년에 20%에서 2008년에 18%로 감소하였다. 24%의 과제중 청소년과 43%의 비만 청소년이 신체적 외모

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였다.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은 2003년에 4%에서 2008년에 5%로 약간의 증가가 있었다. 남자 청소년들은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서 인종 차별(남자 청소년 13%, 여자 청소년 10%)과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남자 청소년 5%, 여자 청소년 4%)을 보다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서 신체적 외모로 인한 차별(남자 청소년 16%, 여자 청소년 19%)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은 청소년의 삶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서적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다. 차별을 경험한 학생들은 극심한 슬픔, 낙담이나 절망을 느끼고, 학교를 싫어하고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보호요인

불안정한 주거, 굶주림, 학대 등의 위험요인은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보호요인의 존재는 건강을 증진하고 위험 행동의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음주, 흡연, 폭력을 전체 청소년과 비교한 결과, 각 보호요인의 존재는 위험행동의 비율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전체 청소년의 음주율은 54%, 흡연율은 26%, 싸움 비율은 24%였으나 보호요인을 사용한 결과는 그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요인과 위험행동의 감소 (단위: %)

번호	보호요인	음주	흡연	싸움
1	학교를 매우 좋아한다	40	15	15
2	대학을 졸업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50	21	19
3	가족의 어른과 대화한다	51	23	21
4	친구들은 누군기를 때리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	46	19	14
5	가족들이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느낀다	44	18	18
	주 전체 청소년의 위험행동율	54	26	24

학교연계나 가족연계와 같은 보호요인의 작은 개선은 많은 영역에서 청소년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가족연계는 부모 및 가족과의 관계를 포함하며, 학교연계는 교사와의 관계 및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포함한다. 가족이나 학교와의 연계가 높을수록 자살생각, 자살시도, 폭음 등의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족연계가 높은 청소년들은 가족연계가 낮은 청소년들보다 신체적 폭력을 하거나 무기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적었다(16% 대 43%). 또한 학교연계가 높은 청소년들도 학교연계가 낮은 청소년들보다 신체적 폭력이나 무기를 학교에 가져올 가능성이 4배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13% 대 51%). 자신의 인종적·문화적 집단을 배우기 위해 노력한 정도를 측정하는 문화적 연계도 청소년들의 위험행동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연계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연계성이 낮은 청소년들에 비해서 각각 폭음(18% 대 35%), 폭력 및 무기소지(26% 대 34%), 취약한 건강(13% 대 20%), 자살생각(10% 대 15%)의 비율이 낮았다.

청소년 참여가 높을수록 위험행동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활동에 가장 열심히 참여한 청소년들은 의미없는 활동에 참여했거나 참여를 거의 하지 않았거나 전혀 하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서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또래관계도 위험행동을 줄이는 보호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험행동을 인정하지 않는 친구를 가진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서 폭음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행동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가진 친구는 폭음에 있어서 강력한 보호요인이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보다 명백하게 나타난다. 친 사회적 태도를 가진 친구가 많은 여학생은 지난달에 폭음 비율이 2%인데 비해 그러한 친구가 적은 여학생의 폭음비율은 46%로 나타났다.

 3. 결론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청소년 주변 상황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상황과 동일하지 않다. 원주민 청소년의 문제, 다문화사회의 확대, 성 문화, 교육제도 및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 등은 우리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문제를 우리 청소년의 문제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이들에게도 발생하고 있으며, 원인 규명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 노력과 정부 및 지역사회의 대응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청소년 위험행동과 장애청소년, 비만청소년, 성소수자 청소년(게이, 레즈비언, 양성 지향 청소년) 등과의 관련성은 우리 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청소년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데이터의 생산과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성과는 청소년 위험행동을 줄이기 위해서 청소년과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의 연계 노력이 보다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 · 중 · 일 고등학생의 학업태도 비교조사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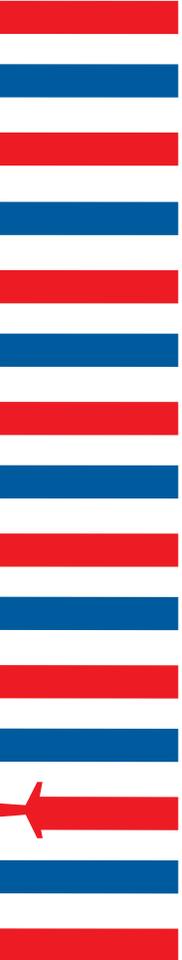
임희진 | 부연구위원 · 김현철 | 연구위원

1. 조사의 목적 및 개요

학력주의는 근대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장치의 하나이다. 그렇지만, 동아시아에서는 늘 과도한 수험경쟁이 학력주의를 왜곡시켜 왔다. 일본의 학력주의는 근대의 제도지만, 중국과 한국은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른바 능력에 의해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는 사회적 아이디어로 중국과 한국은 과거제도라는 사회적 장치와 이념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은 1905년 과거제도가 폐지된 후, 오랜 기간 수험사회로부터 벗어나 있었지만, 최근 학력경쟁의 열기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로써 동아시아 3개국 모두 수험경쟁사회에 돌입하게 되었다. 최근 OECD 등의 학력성취 국제비교 결과의 공표가 국제적인 교육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3개국의 수험경쟁의 열기도 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수험경쟁 사회에서 학업은 청소년들의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따라서 한국, 중국, 일본의 청소년들이 학업에 대해 어떠한 태도와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학업태도에 대한 동아시아적 특징을 밝히는 것은 물론 각국의 차이를 해석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번 한 · 중 · 일 비교조사는 2009년 6월부터 10월까지 한국, 중국, 일본의 3개국에서 실시되었다. 조사지역 및 표본 수는 <표 1>과 같다.

1) 본고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년도 수시연구과제인 '한 · 중 · 일 고등학생의 학습환경 및 학업태도에 관한 국제비교조사'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표 1〉 조사지역 및 표본 수

번호	한국	중국	일본
조사 지역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12개 지역	북경시(北京市), 중경시(重慶市), 호반성 경주시(湖北省荊州市), 광둥성불산시(東省佛山市), 요영성와방집시(遼寧省瓦房店市), 감숙성임조시(甘省臨洮市) 6개 지	동경(東京), 이바라기(茨城), 치바(千葉), 이와테(岩手), 홋카이도(北海道), 나가노(長野), 오사카(大阪府), 야마나시(山梨), 오카야마(岡山), 후쿠오카(福岡) 10개 지역
표본 수	3,379명	약1,870명	1,316명

조사표본의 성별, 학년별, 학교유형별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 비율 및 학년별 비율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하고 있는데 반해, 학교유형별 표본특성에서 일본과 중국은 일반계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학교유형별 표본비율의 차이는 결과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석상 유의할 필요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학교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3개국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경향을 분석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었다.

〈표 2〉 조사표본의 특성

	성별		학년별			학교 유형별		
	남	녀	1	2	3	일반계	전문계	예체능계
한국	53.0	46.9	30.3	34.5	35.1	62.3	33.5	4.2
일본	46.9	53.0	39.1	27.4	33.3	92.0	7.7	-
중국	48.5	51.4	33.0	33.5	33.4	99.3	0.2	-

2. 조사 결과

1) 공부에 대한 생각

한국, 중국, 일본의 고등학생들은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

한국, 중국, 일본의 고등학생들은 모두 공부를 '사회인으로서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 학생들이 공부를 '인격형성에 중요'하다든가, '장래직업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경향이 강한 반면, 한국과 일본의 학생들은 '싫어도 해야만' 한다든가, '입시에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학생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중국의 고등학생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표 3〉 공부에 대한 생각(순위)

〈단위: %〉

순위	한국	중국	일본
1	싫어도 해야만(65.6)	인격형성에 중요(61.2)	사회인으로서 기본(48.2)
2	입시에만 도움(49.2)	사회인으로서 기본(57.1)	싫어도 해야만(45.3)
3	사회인으로서 기본/실용성부족(35.2)	장래직업에 도움(54.4)	입시에만 도움(43.2)

또한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생들은 중국의 고등학생들과 달리 공부가 '인격형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약하다. 중국에서의 학력경쟁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학력경쟁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약한 것으로 보인다.

2) 학습 방식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생들은 '시험전에 한꺼번에' 공부를 하고 '가능한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배운 것과 다른 방법으로 공부하거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조사하는 공부를 하는 경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고등학생들도 '시험전에 한꺼번에' 공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가능한 스스로 생각'하거나 '스스로 정리'한다는 응답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고등학생들의 응답률 상위 3개 항목을 살펴보면, '시험전에 한꺼번에(66.9%)', '가능한 암기(42.7%)', '배운대로(41.4%)'로 한국 고등학생들의 학습방식이 가장 수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학습 방식(순위)

〈단위: %〉

순위	한국	중국	일본
1	시험전에 한꺼번에(66.9)	가능한 스스로 생각(58.5)	시험전에 한꺼번에(62.4)
2	가능한 암기(42.7)	스스로 정리(42.9)	가능한 암기(46.5)
3	배운대로(41.4)	시험전에 한꺼번에(42.8)	스스로 정리(39.2)

3) 학업 스트레스

한·중·일 모두 학업 스트레스를 느끼는 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 크다'(매우 크다+큰 편이다)는 응답은 중국 84.3%, 한국 74.2%, 일본 69.0%로 중국이 가장 높았다. 압박감을 느낀다는 응답률은 3개국 중 일본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일본 청소년들의 학습의욕저하에 대한 일본사회 내의 논의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그러나 일본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압박감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하더라도, 한·중·일 고등학생들 모두 학업 스트레스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5〉 학업 스트레스의 정도 〈단위: %〉

	한국	중국	일본
1) 매우 크다	26.5	20.2	24.3
2) 큰 편이다	47.7	64.1	44.7
3) 별로 없다	21.2	12.1	23.1
4) 전혀 없다	3.8	1.0	7.9

학업 스트레스의 원인을 살펴 보면, 한국과 중국의 고등학생은 '부모의 기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자신의 바램'이라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일본의 고등학생은 '자신의 바램'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어려운 공부', '부모의 기대'와 '취직'이라는 응답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 부모자녀 관계의 밀착정도가 상대적으로 희박하다는 다른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다(문경숙 외, 2008; 손승영, 2009). 이것은 일본 청소년들이 한국이나 중국의 청소년들보다 자기결정권이 더 강하거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3개국의 공통적 특징은 '자신의 바램'이 학업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어서 한·중·일 고등학생 모두 본인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한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모든 나라에서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한·중·일 3개국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지만,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취직'을 공부에 대한 압박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청년노동시장 문제의 심각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중국 고등학생들이 한국, 일본과 달리 '친구와의 경쟁'을 공부에 대한 압박감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점은 특징적이다.

〈표 6〉 학업 스트레스의 원인(순위) 〈단위: %〉

순위	한국	중국	일본
1	부모의 기대(62.5)	부모의 기대(68.3)	자신의 바램(53.0)
2	자신의 바램(57.8)	자신의 바램(61.9)	어려운 공부(40.3)
3	취직(55.8)	친구와의 경쟁(45.0)	부모의 기대(36.6)

4) 성적에 대한 생각

한·중·일 3개국의 고등학생들은 대체로 성적이 '노력'의 반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정도는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가장 높고, 일본이 가장 낮았다(한국 90.7%, 중국 68.3%, 일본 53.0%). 일본 학생들의 학습의욕저하에 대한 일본 내의 담론을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즉, 일본 근대를 이끌어 온 것으로 평가되는 노력 담론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일본 사회의 우려를 어느 정도 뒷받침해준다. 반면, 한국 내의 양극화와 교육에 의한 계층의 대물림 현상에 대한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여전히 '노력신화'에 대한 믿음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열이 '냉각'없이 지속적으로 '가열'되는 현상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7〉 성적에 대한 생각(순위)

순위	〈단위: %〉		
	한국	중국	일본
1	노력(90.7)	노력(68.3)	노력(53.0)
2	자기위치 파악(79.5)	자기위치 파악(61.9)	자기위치 파악(40.3)
3	선생님 사랑(77.8)	공개는 의욕고취(45.0)	선생님 사랑(36.6/33.9)

한편, 성적에 대한 의욕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한·중·일 고등학생들은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다'는 의욕을 나타냈지만, 한국 고등학생들의 의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 고등학생들의 '노력신화'에 대한 강한 믿음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큰 차이는 없지만, 성적에 대한 의욕에서도 일본 고등학생들의 상대적인 학습의욕저하 현상이 확인된다.

〈표 8〉 성적에 대한 의욕도

	〈단위: %〉		
	한국	중국	일본
1) 지금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	72.7	63.8	62.3
2) 더 좋은 성적을 얻고 싶지만 그치지 노력하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는다.	22.6	35.6	29.7
3) 좋은 성적을 얻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다	4.2	0.5	8.0

5) 수업태도

중국의 고등학생들이 수업시간에 가장 착실한 태도를 보이고 수업에도 가장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시간에 항상 또는 자주 준다'는 응답이 한국 33.7%, 일본 45.6%인데 비해 중국은 4.7%에 불과하다. '잡담을 항상 또는 자주 한다'는 응답도 한국이 27.6%, 일본이 38.0%인데 비해 중국은 10.4%에 불과하다.

또한 '수업시간에 항상 또는 자주 적극적으로 발표한다'는 응답이 한국은 16.7%, 일본은 14.5%에 불과한데 비해 중국은 36.2%에 이른다. '항상 또는 자주 스스로 더 자세하게 조사한다'는 응답도 한국은 10.9%, 일본은 15.2%에 그치는데 비해 중국은 48.4%에 달한다.

중국의 고등학생들이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생들보다 전반적으로 수업태도가 좋은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한국에서의 사교육의 영향, 일본에서의 학습의욕저하 현상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표 9〉 수업시간 관련 행동의 긍정응답률

	〈단위: %〉		
	한국	중국	일본
1) 수업시간에 착실하게 노트에 필기한다.	66,5	90,1	94,1
2) 수업시간에 준다.	33,7	4,7	45,6
3) 수업시간에 주변 사람과 이야기한다.	27,6	10,4	38,0
4) 수업시간에 음식을 먹거나 마신다.	5,7	1,8	6,2
5) 수업중에 문자를 보내거나 수업 이외의 책을 본다.	15,8	2,9	13,5
6) 수업시간에 멍하니 있다.	30,5	17,7	46,3
7)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발표한다.	16,7	36,2	14,5
8) 선생님이 내준 숙제는 착실하게 한다.	54,3	91,9	74,2
9) 숙제 외에 예습, 복습을 한다.	18,4	67,3	36,2
10) 수업에서 배운 것을 스스로 더 자세하게 조사한다.	10,9	48,4	15,2

6) 교사에 대한 호감

중국의 고등학생이 선생님을 좋아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다. '대부분의 선생님이 좋다'는 응답은 32,8%로 한국과 일본의 2배에 달한다. 반대로 '대부분의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응답 역시 9,8%로 한국과 일본의 절반에 미치지 않는다. 한국의 고등학생은 16,8%가 '대부분의 선생님을 좋아한다'고 응답했고, 38,5%가 '절반이상의 선생님을 좋아한다'고 응답했다. 일본의 고등학생은 14,8%가 '대부분의 선생님을 좋아한다고' 응답했고, 41,4%가 '절반이상의 선생님을 좋아한다고' 응답했다.

한국과 일본이 중국보다 교사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는 것은 대중수험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대중교육사회를 넘어 대중고등교육사회 즉, 누구나 학교에 진학하고, 또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게 되는 한국과 일본 같은 대중수험사회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0〉 교사에 대한 호감

	〈단위: %〉		
	한국	중국	일본
1) 대부분의 선생님을 좋아한다	16,8	32,8	14,8
2) 절반이상의 선생님을 좋아한다	38,5	55,0	41,4
3) 절반이상의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는다	26,0	9,8	25,5
4) 대부분의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는다	18,0	1,9	18,3

좋아하는 교사의 유형에서도 대중수험사회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한국과 중국의 고등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교사 유형은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선생님'이다. 반면 중국은 '학생지도를 열심히 하는 선생님', '수준 높은 내용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학생들이 좋아한다고 응답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생은 교사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원하고 중국 고등학생들은 잘 가르치는 교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 고등학생들의 이러한 경향은 다른 국제비교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한국과 일본은 서구 사회에 비해 학력을 중시하고, 학력 경쟁이 더 심하지만, 서구 사회와 달리 교사들에게 교수능력보다는 정서적 지지를 더 원한다. 학력사회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 현상이다(김현철 외, 2009).

〈표 11〉 좋아하는 교사 유형

	〈단위: %〉		
	한국	중국	일본
1) 수준 높은 내용을 가르치는 선생님	11.6	57.3	21.6
2) 학생에게 엄격한 선생님	3.7	16.8	3.1
3) 학생지도를 열심히 하는 선생님	27.7	68.7	37.7
4) 학생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선생님	40.8	29.8	30.1
5) 지식이 풍부한 선생님	21.4	27.5	52.5
6) 편애하지 않는 선생님	55.9	40.6	39.5
7) 겉모습이 멋진 선생님, 예쁜 선생님	18.3	4.9	5.9
8)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선생님	71.2	28.4	60.0
9) 공부에 대해 잔소리 하지 않는 선생님	22.2	20.1	18.5

3. 결론

한·중·일 3개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비교해보면, 중국 고등학생이 가장 학구적인 경향성을 드러낸다. 학습 방식이나 좋아하는 교사유형 등 대부분의 학업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생에 비해서 선생님을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중요시여기고 이를 실천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에서의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조사대상자의 99.3%는 인문계 학생이었다. 일본도 조사대상자의 92.0%가 인문계에 속하지만, 학교교육의 대중화 정도 측면에서 볼 때 중국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은 여유 있는 계층의 자녀로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2009년도를 기준으로 중국 도시부의 고교진학률은 70%이고 대학진학률은 40%이다. 그러나 도시부에서도 농촌출신 노동자의 자녀들은 이러한 통계수치와 거리가 멀다. 중국 중서부의 무한(武漢)대학이 중학교에 다니는 농촌출신 노동자 자녀 300명의 진로희망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술학교 진학희망이 72%, 취직희망이 10%이고, 대학진학을 위한 일반계 고교 진학희망자의 비율은 18%에 불과했다. 도시부와 농촌지역 간의 교육격차도 매우 크다. 그러므로 중국의 인문계 고등학생은 일본이나 한국의 고등학생에 비해 그 위상이 매우 높고, 공부에 대한 열의와 수준도 높다고 보여진다. 또한 중국 고등학생이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생에 비해 매우 높은 학구적 경향성을 보이는 것은 그러한 차이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생 중에서는 공부나 학교와는 거리를 두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나라는 20여 년 전에 고학력사회로 접어들어 고졸이라는 학력은 물론 대졸이라는 학력조차 사회적 효용가치도 매우 낮아진 실정이다. 거의 100%에 달하는 고교진학을 속에서 공부에 대한 준비도나 습관, 의욕과 목표의식이 낮은 많은 학생들도 고등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공부에 흥미를 가지지 못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지도 모른다. 이른바 대중교육사회의 딜레마이다. 이러한 상황이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생들로 하여금 공부를 입시의

수단으로만 보는 경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고교교육이 아직도 대중화되지 못한 중국의 고등학생은 학구적인 경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의식도 높게 나타난다. 중국 고등학생들이 공부를 바라보는 첫 번째 순위는 인격형성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 고등학생의 공부에 대한 응답에서 인격형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이처럼 중국의 고등학생은 높은 학구열과 도덕적 지향성을 바탕으로 한 엘리트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결과를 보면, 3개국 간의 학교교육 대중화의 차이, 입시시스템의 차이와 같은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차이와 함께 고등학생 개개인의 행동이나 의식, 정서와 같은 일상적인 차원에서의 세세한 차이도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중·일 비교를 통해서 동아시아의 학력주의가 가져온 고등학생들의 공통된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대중교육사회의 진입이 가져오는 영향력과 중국과 같은 대중교육전사회의 모습을 통해서 학력주의의 변동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향후에는 보다 심층적인 사회문화적인 배경에 대한 분석을 통한 진일보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진숙(2001).
일본인의 학력의식과 심성의식에 관한 연구: 고도성장기 이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진숙 · 임희진 · 김현철(2010).
한·중·일 고등학생의 학습환경 및 학업태도에 관한 국제비교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문경숙 · 김현철 · 김지연 · 민경석(2008).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Ⅲ,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손승영(2009). 모성과 자녀교육열의 한일비교, [조사결과] 미간행.
- 이종원 · 임희진 · 이경자(2007).
고교생의 생활·의식 국제비교 연구 - 한·중·일·미 4개국 비교 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金鉉哲(2005).
日本の學歷社會・學歷主義の歴史-韓國との比較 渡辺委樹編, 現代日本の社会意識-家族・子ども・センター, 慶應義塾大学出版社.
- 金鉉哲ほか(2009).
青少年の社会化の日韓比較研究-社会化エージェントと関係性: 国際比較結果より, 第81回日本社会学会大会.
- 竹内洋(1995). 日本のメリトクラシー: 構造と心性, 東京: 東京大学出版社.

GLIS(Global Leaders' interactive society)를 소개합니다

김아로 | 대전관저고등학교

GLIS는 Global Leaders' Interactive Society 의 약자로, 무학여고 3학년 황예지(현 GLIS대표)를 중심으로 하여 총 15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학생 자치 단체이다. GLIS는 국내에 거주하는 학생들 개개인의 실력향상과 쉽게 지치는 학교생활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의지를 갖춘 학생들이 부산, 대전 등 전국의 각지에서 모여 결성되었다.

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대학생이 아닌 중, 고등학생들은 과도한 입시와 살인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학교생활에 의해 10대라는 귀중한 시절을 의자와 책상과 함께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소비해 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글로벌 리더들의 상호 협력적 사회'라는 Global Leaders' Interactive Society의 뜻 그대로 GLIS는 국내의 많은 학생들이 입시와 교내 생활이라는 제한적 활동영역이 고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제적인 규모까지 활동영역을 확장하여 학생들 개개인의 새로운 자기계발의 전환점을 마련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것에 단체의 지향점을 두고 있다.

쉽게, 하지만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꿈조차 없이 보내버리기 쉬운 10대의 시절에 좀 더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쌓아보자는 공통된 의사의 형성으로, 2010년 3월에 첫 공식 회의를 가진 후 GLIS라는 이름을 가지고 설립하게 되었다. 한국이라는 지역적 한계와 학교교육

과 사교육에 얽매어 가는 현실 속에서, 학생들은 쉽게 지치고, 의욕을 잃기가 십상인데, GLIS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하여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GLIS를 통하여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고, 진정으로 자신의 꿈을 향하여 전진하고 최대한의 역량을 끌어내어 최상의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0년 현재, 8월에 GLIS MUN 2010이라는 모의유엔대회(MUN)를 개최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기존의 대회 및 행사와는 달리 GLIS는 순수 학생주최라는 점과 구성원 모두가 개인의 필요와 이익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닌 전국의 학생공동체를 위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활동한다는 점에서 그 어떤 단체보다도 차별적인 성격을 지닌다.

디자인, 인문,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GLIS의 15명의 학생들은 저마다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GLIS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상호 협력하는 사회'(Interactive Society)라는 명칭에 걸맞게 그 누구도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며, 좀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하여, 좀 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관심을 갖고 전문적인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GLIS는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MUN이란?

모의유엔대회(Model United Nations)의 약자로, 미국의 뉴욕에 위치한 실제 UN에서의 회의를 학생 또는 단체가 주체가 되어 모의로 진행하는 것이다. UN의 회의와 마찬가지로 사안의 분야에 따라 구분된 위원회들은, 저마다의 분야에 해당되는 국제적인 사안들에 대해 주제를 상정하게 되고 그것의 해결을 위한 토론을 하게 된다. 지역과 특성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MUN의 모든 것은 실제 UN과 같은 재현을 이끌어내며 국제적 이슈들에 관심을 가지고 토론 하는 데에 그 지향점을 두고 있다.

UN은 세계의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회의'인 만큼 MUN역시 참가자들에게 국가를 배정하여 실제의 회의와 최대한 동일하도록 그에 맞는 태도와 준비를 요구한다. 한 학생 혹은 단체가 한 개의 국가를 배정받게 되며 회의에서는 배당된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써의 자격을 가지고 참석하게 된다. 또한 토론의 전반적인 주제를 참가자들에게 제공하는 각각의 위원회는 회의에서 토론되는 주제와 분야에 따라 총회(GA),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안전보장이사회(SC) 등으로 나누어져 실제 UN과 같이 진행된다.

UN, 외교, 국제적 이슈 등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치부될 수 있는 문제들을 실생활에서는 쉽게 무시하고 지나치기 쉽게 되는데, MUN은 이러한 낯섬과 일상과의 괴리감을 한층 더 줄여줄 수 있는 기회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MUN의 본 취지이다. 더 나아가 MUN을 통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으며, 회의 중 다른 참가자들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새로운 활동영역으로의 발돋움의 시작과 폭넓은 사고의 확장, 세계가 진정으로 원하는 '글로벌 리더'로의 디딤돌을 형성할 수 있다.

MUN은 한국에만 한정된 규모의 대회가 아니라, 싱가포르, 호주, 미국 등 세계각지에서 저마다의 특색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국제적 규모의 대회라고 할 수 있다.

GLIS MUN 2010?

GLIS MUN 2010은 GLIS 와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모의유

엔(HYMUN)이 제휴하여 8월 3일~8월 5일 총 2박 3일간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개최하는 MUN대회이다.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참가자 개개인들이 국제사회에 대한 관심 제고와 문제해결 과정에 모의로나마 참여하여 보다 더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MUN이라는 대회의 특성상 영어로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국내의 많은 학생들이 참가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또한 한국어와 영어간의 언어 차이로 인하여 회의 중 진행언어를 한국어를 사용하려는 시도는 그리 많지 않았다. 영어 회화 수준이 일정 실력 이상 갖추어져야지만 원활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던 기존의 한국 내 MUN의 한계를 벗어나 한국어로 진행되는 위원회를 개설함으로써 영어를 원활히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참가기회의 폭을 넓혔다.

GLIS MUN 2010은 영어를 회의 진행 언어로 사용하는 위원회 5개, 한국어를 사용하는 5개의 위원회를 만들었으며 언어별 위원회 마다 공통으로 부여된 위원회의 총회(General Assembly)와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를 제외한 6개의 위원회는 각기 다른 분야를 토론하는 위원회로 구성되었다. 여기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사와 흥미를 고려하여 정치, 사회, 경제뿐만 아니라 환경, 법, 역사 등을 위원회 별 주제로 상정하여 참가자들의 각기 다른 요구의 충족과 선택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자신이 필요한 주제와 전공에 따라 적합한 주제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다양한 주제를 학생 참가자들이 취향과 필요에 따라 선택함으로써 자기계발의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슷한 관심을 가지며, 비슷한 또래의 구성원들로 회의가 구성되는 만큼 공통된 관심사의 형성과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토론의 내실화를 창출하고, 심화된 내용의 논의를 이끌어내어 누구나 원활히 참여할 수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GLIS MUN 2010은 Global Leaders' Interactive Society라는 명칭의 뜻처럼 국제사회와 외교적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몸으로 직접 실천하는 학생들을 국내라는 지역적 한계에서 벗어나 자신의 실력을 내뽐을 수 있도록 조력

자의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사용하는 위원회가 있기에 처음으로 MUN을 시작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 예상되어 자체적으로 한국어 및 영어 매뉴얼을 제작하였으며, 대회전에 참가자 워크 을 한국어, 영어 따로 진행하여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우려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운영을 하기 위하여 GLIS는 사무총장실, 관리국, 경제사회국, 공보실, 총회회의운영국 5개의 부서를 창설하여, 대회의 성공적 유치와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GLIS는 순수하게 학생으로 이루어진 단체인 만큼 GLIS MUN 2010을 운영하는 데에 미숙한 점이 있을 것이라 쉽게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GLIS MUN 2010은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모의유엔(HYMUN)과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운영 중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처리와 잠재적 문제발생의 최소화를 이끌어 내었다. GLIS MUN 2010이 첫 회를 맞는 만큼 진행과 운영에 다소 어려움과 미숙함의 필수불가결적인 발생을 방지하였고, GLIS 자체 만으로의 일처리가 아닌 보다 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함에 있어 좀 더 완벽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한양대학교와 연계를 맺었다면, 국외에서는 버클리 대학교 모의유엔과 연계를 형성하였다. GLIS MUN 2010은 미국의 버클리 대학교모의유엔(BMUN)의 참가 자격을 획득하여, 일정 조건을 갖춘 참가자들을 버클리대학교 모의유엔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GLIS MUN 2010은 7월 15일까지 참가자들을 모집하며, glis.or.kr을 통해 좀 더 자세한 정보와 지원방법을 알 수 있다.

GLIS 구성

GLIS는 GLIS MUN 2010을 개최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실, 관리국, 경제사회국, 공보국, 총회회의운영국 5개 부서로 나누어져 최적의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대회 중 보다 더 원활한 대회를 위하여 개설된 스태프 전담 부서는 사무국에 예속되어 있지만 부서들은 모두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상호간 협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웹에 게재되어있는 GLIS운영진 단체사진〉

- 사무총장실: 대표 황예지(무학여고 3)와 부대표 김규훈(용인외고2)로 이루어져 있다. 총괄국에서는 실질적으로 GLIS를 운영하는 부서이며, 구체적인 예로 후원, 대회 관리 등 총체적인 지휘를 전담한다.

- 관리국: 이원준(은혜고3)을 국장으로 하여, 현성준(안남고3), 박윤빈(용인외고2)의 2명의 차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국은 GLIS의 전반적인 업무와 더불어 GLIS 자체 회의 중 필요한 장소 및 일정 설정을 전담한다. 또한 스태프 전담부서를 예속부서로 두고 있어 워크 및 대회당일 대회 운영을 총괄국과 함께 보조하여 실무를 담당한다.

- 경제사회국: 김아로(관저고3)를 국장으로 하여, 전세정(개포고2), 유상복(휘문고2)의 2명의 차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무국은 GLIS 및 GLIS MUN 2010을 운영하면서 장소와 더불어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업무를 전담하며, 예산안, 지출 등을 관리한다.

- 공보국은 구경모(홍스쿨링19)를 국장으로 하여 조인국(서울광문고2), 조영훈(서울외고2), 서원우(용인외고2) 3명의 차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보국은 GLIS 자체 홈페이지 개설 및 관리, GLIS관련 로고, 이미지 등 홍보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전담한다.

- 총회회의운영국은 김상윤(신갈고3)을 국장으로, 이석영(한영외고2), 김경의(침심국제고) 2명의 차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국은 대회진행에 필요할 참가자 및 의장단의 전반적, 세부적 교육을 전담한다. 또한 필요한 매뉴얼 작업

및 의장단 선발, 참가자 워크 외 교육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전담한다.

어려웠던 점

1. GLIS구성원은 고등학생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GLIS의 구성원들이라해도, GLIS와 GLIS MUN 2010의 개최가 첫 시작인 만큼 부서별로 부여되는 업무의 양은 고등학생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 일상사였다. 대학생이 아닌 고등학생이라는 신분은 GLIS가 운영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 고등학생인 만큼 GLIS 이외의 입시준비 및 학교생활 등은 운영에 차질을 생성하곤 했다. 구성원들이 가까운 지역에 한정되어 분포하는 것이 아닌 전국으로 분포가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구성원들 간에 자주 만나기 힘들었고, 넓은 활동범위를 이룰 수 있었지만, 피상적인 접근으로써의 활동만이 간헐적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었다. GLIS 자체의 일의 힘듦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 또한 평범한 일상을 넘어 지낼 수밖에 없었다. 시험기간 동안에는 GLIS 구성원 15명 너나 할 것 없이 시험공부와 GLIS를 운영하는 일을 하기위하여 서로 다른 시험일정에 맞추어 밤새도록 업무와 개인공부를 병행해야만 했다. GLIS가 관심과 조정이 필요한 만큼 거기에 시간을 소비하게 되며, 학업유지에 대한 주변의 근심과 걱정을 끊임없이 들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2. 처음시작한 GLIS

열정과 실력으로 모인 GLIS멤버들이었지만 이런 스케일이 큰 대회의 개최는 처음이었던지라 무엇보다 시작해야 하는지, 무엇이 우선인지 등 감이 안 잡혔다. 초창기에는 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듯이, GLIS 역시 초창기에는 질서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있었고,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도에 하차하는 인원도 생겨나면서 새로 인원을 보충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는 했다. GLIS라는 단체가 설립되

고 현재까지 운영되는 데에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연이은 피드백 및 수정작업이 존재했고, GLIS MUN 2010을 기획하기 까지는 결코 순탄하지 않은 작업이었다.

3. 개최날짜 및 장소

긴 겨울방학과는 달리 짧은 여름방학에 개최하는 GLIS MUN 2010은 GLIS MUN 2010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대회, 행사가 저마다의 일정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GLIS는 GLIS MUN이 1회로써 첫 개최를 맞는 만큼 날짜 및 장소 선택에 신중을 가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타 대회 혹은 행사와 날짜가 중복되거나 이미 선정되어 있어 수차례 날짜변동을 하여 혼란을 가미하였고, 날짜가 겹쳐 대외적으로는 타 대회와의 마찰도 감안해야만 했다. 또한 한동안은 날짜 확정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장소가 없어 몇날 몇일을 GLIS운영진과 함께 고민하고 장소를 따내려고 노력한 결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를 장소로 컨택했다. 그러나 문제는 기숙사였다. 애초에 수도권학생과 지방학생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 숙박을 허용하려 했던 우리의 취지는 빗나갔다. 한양대학교 측에서 썸머스쿨 때문에 기숙사를 쓸 수 없다는 말을 전해들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시험기간이었지만 이미 늦을대로 늦은 상태에서 더 이상은 숙박선정을 미룰 순 없었다. 그리하여 일주일만 고생한 끝에 예산안에 근접한 곳을 찾았다. 실사 탐방을 나간 후 그랜드 엠배서더호텔에서 GLIS MUN 2010 숙박을 결정하게 되었다.

4. 후원 그리고 홍보

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학생단체인 만큼, 재정적인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후원을 확정 받아야 홍보를 할 수 있었고, 홍보를 서둘러 해야 참가자를 유치 할 수 있었다. 그러기 위해선 웹사이트가 시급했다. 웹사이트를 개설하였지만 타 대회보다 늦게 준비하였고, 준비기간 또한 늦어져서 대회홍보의 어려움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러나 GLIS운영진 전원이 학업을 뒤로한 채 각자 업무를 나누어 후원공문을 보내고, 미팅을 하며 이뤄낸 성과가 차츰 보이기 시작하였고 지금의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 학생의장단 면접 준비중인 glis운영진 〉

가장 보람있었던 점은 모든 운영진이 공감하는 부분으로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GLIS라는 이름을 만들어 無에서 有를 창조한 것이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가장 최근인 GLIS의 첫 공식 활동이었던 학생의장단 선발이 가장 보람 있는 기억이자 경험이지 않을까 싶다. GLIS운영진 모두가 우리대회 진행을 맡을 최고의 의장단을 선발하기위하여 면접에 쓰일 질문을 만들고 회의를 하고, 면접 장소를 컨택하는 등 진정으로 GLIS가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각자 개인의 부서에 한정된 일을 하다가 학생의장단을 선발하기 위해 모두가 단합하여 일하는 것을 GLIS 구성원 모두가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었고, 모두가 일치된 듯한 느낌을 받았던 좋은 경험이자 기회였고, 보람이었다.

현재 GLIS는

3월에 결성되어 활동해온 GLIS는 3월 21일에 서울시립청 소년문화센터에서 제 1차 오프라인 총회를 가졌고, 3월 27일에 제 2차 오프라인 총회를 가졌다. 총회에서는 향후 구체적인 홍보 계획, 웹사이트 제작 계획, 참가자를 위한 매뉴얼 제작 계획, 의제 확정 등의 사항을 논의하였으며, 5월 3일에는 glis.or.kr이라는 GLISMUN 2010 웹사이트를 공식적으로 오픈하였고, 5월 22일에는 토즈홍대점에서 1차 학생의장단 선발 면접, 5월30일에는 2차 학생의장단 선발 면접을 거쳐 5월31일 총 24명의 의장단을 선발하였다. 현재, 8월 3일~5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릴 GLIS MUN 2010의 성공적 개최에 일차적 활동 목적을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속적인 온라인회의와 오프회의를 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활동을 지속중이다. 또한 애초의 설

립목적과 더불어, MUN 초보도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한다.

향후계획

시간이 흐를수록 세계 그리고 인류는 국내에 한정된 활동이 아니라, 국제적인 사고의 확립 및 증진과 ‘글로벌리더’로서의 역량이 강조되는 국제화, 세계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요구에 발맞추어 한국사회 역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그 길을 쫓아가고 있다. 이에 GLIS는 GLIS MUN을 개최한다는 초기의 활동 목적 이외에도 학생들의 계발 증진과 역량의 증대를 위한 활동에 더욱더 중점을 둘 것이다.

GLIS MUN 2010 개최 후 GLIS는 2기임원진을 선출하여 지속적인 GLIS 운영을 할 것이다. 또한 1기 운영진과 2기 운영진간의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멘토십을 형성하여 끊임없는 발전을 도모하려 한다. 또한 사회적 기업, NGO등 다양한 의제 관련 단체와 연계를 통해 MUN에서는 단지 모의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차원을 넘어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캠페인 및 유엔관련 행사에 참여할 것이다. 1회 대회가 끝난 후에는 남은참가비 모든차액을 GLIS이름으로 UNICEF에 기부할 예정이다.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와 청소년 활동

김형주 | 부연구위원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선진화’ 라는 부제와 함께 학부모정책 중장기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다(2009.11.9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그 추진 배경은 우선 교육주체로서의 학부모 인식 제고와 학부모 교육참여 욕구 증대, 그리고 종합적인 학부모정책이 부재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무엇보다 학교교육에 있어서 학부모의 참여 확대는 이른바 지역사회와 학교교육의 연계라는 맥락에서 중요하다. 그간 해방이후 큰 틀의 변화 없이 이어온 초중고교의 공교육 체제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가져올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이번 교육과학기술부의 학부모정책 추진방향의 주요 방향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학부모회를 활성화하여 이를 중심으로 학부모의 학교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학부모가 원하는 여러 교육을 제공하여 자녀교육과 관련된 부모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교육관련 정보나 상담 기회의 확대를 통해 학부모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여 학부모의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공교육에 있어서의 학부모 활동은 학교별로 조직된 후원회, 사친회, 기성회라는 이름하에 주로 학교의 부족한 재원을 일부 보충하는 형태의 매우 단편적인 역할에 그쳤다가, 1980년대부터 학부모회라는 자율적 구성 조직으로 등장하여 평생교육과 지역봉사활동 등 그 활동 범위가 넓어졌다. 1995년에는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운영위원회 조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학부모가 학교운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길이 법적으로 마련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교교육에서 학부모의 역할은 부차적인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주로 학교나 교사 활동의 일부를 보조하는 주변적 위치에 남겨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학부모정책 추진방향의 주요 내용 중 학부모의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부모 코디네이터, 학생상담 지원, 교육정책 참여, 지역사회 자원 활용 등은 학부모라는 학교 밖의 물적·인적 역량을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공부에 매몰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다음 그림은 학부모정책의 강화를 통해서 변화되는 교육의 기대효과를 예상해 본 것이다.

구분	전(前)	후(後)
학부모	자녀교육에 대한 지식 부족 형식적 학교 참여 교육 문제에 개인적 불평 학교 참여를 부담으로 인식 사교육에 대한 의존 학부모간 교류 부족	자녀교육에 대한 풍부한 지식 적극적 학교 참여 학교와 교육 문제에 공동대처 학교 참여를 권리로 인식 공교육과 가정교육을 중시 학부모간 적극적 교류
청소년(학생)	학부모와의 대화 단절 학교만을 교육의 장으로 인식	학부모와의 적극적 대화 가정도 교육의 장으로 인식
교원	학부모와의 소극적 교류 교육 정보의 제한적 제공 학부모의 관심에 거부감 교원 중심의 생활지도	학부모와의 적극적 교류 교육 정보의 적극적 제공 학부모의 관심에 호의적 학부모와 함께하는 적극적 생활지도
학교	학부모 지원 서비스 미비 학교 운영의 투명성 부족	학부모 지원 서비스 개선 학교 운영의 투명성 제고
교육당국	교직원 중심의 교육정책 수요자와의 교류 부족	학부모와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 수요자와의 교류 활성화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정책 추진방향(안), 2009.11.9

학부모는 지역사회 인적자원중 청소년 활동에 가장 밀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즉, 자녀의 학교교육에 대한 최대의 관심사이자 지역사회 교육의 제일의 이해당사자로서 학교내 청소년들에게 기존 공교육에서 미처 하지 못한 여러 청소년 활동 지원에 있어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시안)에 등장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역사회의 참여, 특히 학부모의 역할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이번 교육과학기술부의 학부모정책 강화는 이런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발간물 소개

<청소년가출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연구>

백혜정 · 방은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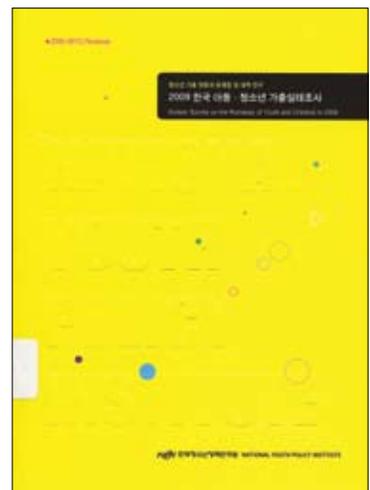
이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생활태도 및 가출실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생활향상을 돕기 위해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출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 약 8%가 가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고등학생은 약 12%, 중학생은 약 8%가 가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4, 5, 6학년의 경우도 약 3%가 가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의 가장 주된 이유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응답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싫어서”란 응답이 약 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외에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약 15%)”, “부모님이 나에게 대한 간섭을 지나치게 해서(11%)”, “부모님이 나에게 욕을 하거나 때려서(약 9%)” 순으로 나타났다.



<2009 한국 아동·청소년 가출실태 조사>

백혜정

이 기초분석보고서는 본원이 2009년도에 수행했던 <청소년 가출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연구>의 조사 데이터 소개와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성별, 교급별, 권역별, 가족구성별, 경제적 수준별로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조사내용을 알 수 있다.



〈한국청소년지표조사 IV(청소년 진로·직업지표)〉

최인재 외

이 연구보고서는 전국의 중·고등학생 6,509명을 대상으로 한국 청소년들의 진로·직업에 대한 가치와 태도, 교육, 준비, 체험 등 진로관련 실태를 파악했다. 조사결과 청소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생활에서의 가치 순위는 '쾌적한 근무환경(M=4.53)',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M=4.53)', '성취감을 갖고(M=4.31)',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M=4.29)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버는 것(M=4.09)' 순으로 나타났다.



〈2009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조사〉

최인재

이 기초분석보고서는 본원이 2009년도에 수행했던 〈한국청소년지표조사 IV〉의 조사 데이터 소개와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성별, 교급별, 권역별, 가족구성별, 경제적 수준별로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조사내용을 알 수 있다.



| 단행본

No. 1 서 명 : 서명 : 다문화 사회와 어린이: 소아정신과외사가 권하는 다문화 사회 아동정신건강
저자 : 다프네 키츠
저 자 : 출판사: 한울아카데미
출판사 : 출판년 : 2010

No. 2 서 명 : 다문화주의: 인문학을 통한 다문화주의의 비판적 해석
저 자 : 안드레아 켐프리니
출판사 : 경진
출판년 : 2010

No. 3 서 명 : 다문화주의 윤리학
저 자 : 팍 브라운
출판사 : 철학과현실사
출판년 : 2009

No. 4 서 명 : 관용: 다문화제국의 새로운 통치전략
저 자 : 웬디 브라운
출판사 : 갈무리
출판년 : 010

No. 5 서 명 : Handbook of the Life Course
저 자 : Jeylan T. Mortimer
출판사 : Springer
출판년 : 2007

No. 6 서 명 : Designing Student Leadership Programs: Transforming the Leadership Pot
저 자 : Mariam G. MacGregor
출판사 : Youthleadership.com
출판년 : 2005

No. 7 서 명 : Building Everyday Leadership in All Teens : Promoting Attitudes and Actions for Respect and Success
 저 자 : Mariam G. MacGregor
 출판사 : Free spiriat publishing
 출판년 : 2007

No. 8 서 명 : Teambuilding with Teens : Activities for Leadership, Decision Making, and Group Success
 저 자 : Mariam G. MacGregor
 출판사 : Free spiriat publishing
 출판년 : 2008

I 연간물

No. 1 서 명 :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출판사 : Springer
 출판년 : v.39, n.5 (2010/05)

Bullying Victimization and Adolescent Self-Harm: Testing Hypotheses from General Strain Theory/ The Relative Influence of Different Domains of Social Connectedness on Self-Directed Violence in Adolescence/ The Influence of Romantic Attachment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on Non-Suicidal Self-Injury in Young Adults/ Perceived Dimensions of Parenting and Non-Suicidal Self-injury in Young Adults/ 'Bad' Boys and 'Sad' Girls? Examining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Effects on Parasuicides Among Youth/ How Much Detail Needs to be Elucidated in Self-Harm Research?/ Psychological Distress, Substance Use, and HIV/STI Risk Behaviors Among Youth/ The Impact of Multiple Types of Child Maltreatment on Subsequent Risk Behaviors Among Women During the Transition for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Adolsecent Risk Behavior Subgroups: An Empirical Assessment/ Interactions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Supportive Relationships in the Prediction of Adolescents' Internalizing Difficulties

No. 2 서 명 :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저 자 : ELSEVIER
 출판년 : v.32, n.6 (2010/06)

A question of class: On the heterogeneous relationship between background characteristics and a child's placement risk/ Understanding service use and victim patterns associated with re-reports of alleged maltreatment perpetrators/ The problems and barriers of RHYA as social policy/ Long-term effects of Head Start on academic and school outcomes of children in persistent poverty: Girls vs. boys/ The current status and impact of US National Policy on the help-seeking/ Service use and multi-sector

use for mental health problems by youth in contact with child welfare/ Frequent moving has a negative affect on the school achievement of foster children makes the case for reform/ Behavioral characteristics among obese/overweight inner-city African American Children: A secondary analysis of participants in a community-based Type 2 diabetes risk reduction program

No. 3 서 명 :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출판사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출판년 : v.18, n.2 (2010/06)

Restorative Justice through a Children's Rights Lens/ The Child's Right to an Education: 'Consensus-Minus-One'?/ Protecting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Youth Justice Systems in Ireland, England and Scotland/ Identities, Subjectivities and Language in Juvenile Alcohol Issues/ Consumerism, Sweets, and Self-Determined Choice/ Constitutional Analysis: A Proclamation of Children's Right to Protection, Provision, and Participation/ Cultural Difference and Adoption Policy in the United States: The Quest for Social Justice for Children

No. 4 서 명 : Journal of Youth Studies

출판사 : Routledge

출판년 : v.13, n.3 (2010/06)

'They're battle scars, I wear them well': a phenomenological exploration of young women's experiences of building resilience following adversity in adolescence/ Social costs of poverty; leisure time socializing and the subjective experience of social isolation among 13-16-year-old Norwegians/ 'I just want a job' - what do we really know about young people in jobs without training?/ Responding to the 'needs' of young people in job without training(JWT): some policy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Youth transition to university in Germany and Australia: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healthy eating behaviour/ Identity and future concerns among adolescents from Italy, Turkey and Germany: intra- and between-cultural comparisons/ An examination of family and social support networks as a function of ethnicity and gender: a descriptive study of youths from three ethnic reference groups/ The gothic folk devils strike back! Theorizing folk devil reaction in the post-Columbine era

| 비도서자료

No. 1 서 명 : 다름에서 어울림으로: 우리 교육 속의 다문화

출판사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자료유형 : DVD



제3회 국정과제 공동세미나

품격 높은 선진일류국가 진입을 위한 대토론회 발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명숙 원장은 4월 28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회 국정과제 공동세미나 '품격 높은 선진일류국가 진입을 위한 대토론회' 서 '청소년의 인성 및 공동체 의식 증진방안' 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이명숙 원장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중요성과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지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상임대표, 김태석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오대영 중앙일보 기자, 유영학 보건복지부 차관,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참석했다.



핀란드 청소년지도자 방문 간담회 개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5월 14일(금) 오후 2시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핀란드 청소년 지도자들과의 간담회를 원내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관을 방문한 핀란드 청소년 대표단은 교육문화부 청소년정책과장 올리 사렐라(Olli Saarela) 등 5명이다. 이명숙 원장은 환영인사를 한 뒤 간략하게 본원의 연혁과 수행 중인 연구과제 등에 대해 설명했고 핀란드와의 실질적인 교류를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양국 간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활발히 논의됐다



제6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참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5월 27일(목)부터 5월 30일(일)까지 4일간 부산 BEXCO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에 참가했다. 행사기간 동안 본원에서 발행된 여러 발간물들을 참가 청소년들에게 나눠줬다.



〈편집자 주〉

이번 호는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생각과 가치를 탐색해 보는 내용으로 꾸몄습니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무엇보다도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오랫동안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중요한 직업가치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응답자의 반 가량이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진로교육이 교육현장에서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적성과 특기를 일찍 발견해 원하는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114 교총빌딩 9/10층
114 Taebongro, Seocho-Gu, Seoul 137-715 Korea
Tel. 82-2-2188-8860/8800 Fax.82-2-2188-8869
www.nypi.re.kr